

**MONT
BLANC**

*Writing opens
up the world.
Pass on this
precious gift.*



**Hugh Jackman and the
Montblanc for UNICEF Collection**

휴 잭맨과 몽블랑 UNICEF 컬렉션



몽블랑은 글쓰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UNICEF와의 파트너십을 기념하는 UNICEF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전 세계 5백만명의 어린이를 위한 학습 환경 개선을 목표로 UNICEF와 함께 교재 제공 및 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ontblanc.com/unicef에서 확인해보세요.

Crafted for New Heights.



조선일보
Style

MAY 2017
vol.157



Ermenegildo Zegna
DEFINING MOMENTS

UNICEF does not endorse any brand or product. Part of the proceeds from the "Montblanc for UNICEF Collection" will be donated to UNICEF and its literacy projects, with a minimum amount of US\$1.5 million being guaranteed by Montblanc.



©T&CO. 2017 TIFFANY.COM

INTRODUCING TIFFANY HARDWEAR



LADY GAGA
SOME STYLE IS LEGENDARY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BOTTEGA VENETA



40 39



표지에 등장한 이만희는 에르메네제오 제니의 감성적인 메시지를 담은 2017 S/S 시즌 캠페인 영상인 'Defining Moments'의 감성적 순간의 한 장면이다. 세계적인 배우 로버트 드 니로와 할리우드 신예 맥 카울 캄비르다가 등장해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아름다운 영상은 전 세계 에르메네제오 제니 커뮤니티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의 02-2240-6624



2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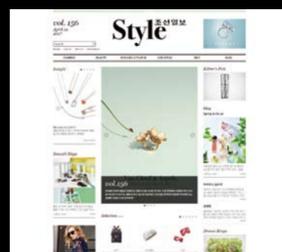
- 14 책의 한숨 달래는 '경제 확장형' 행보를 온라인 서점과 대형 브랜드 서점이 장악한 책 세상에서 동네 책방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취향 저격을 외치며 고군분투하는 독립 서점, 소규모 자금과 인력으로 꾸러기며 나름의 존재감을 발휘하는 1인 출판사의 행보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요즘이다.
- 16 THE FASHION-WOMAN (스타일 조선큐노)가 섬세한 인목과 기운으로 제안하는, 여성을 위한 멋스러운 패션 기프트 가이드.
- 18 THE FASHION-MAN 실용적인 아이템부터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패셔너블한 제품까지, 남성을 위한 기프트 셀렉션.
- 20 THE LIVING 라이프스타일을 한결 멋지게 만들어줄 실용적이면서도 스마트한 기프트 아이템.
- 22 THE JEWELRY 럭셔리 주얼리 하우스에서 엄선한 5월의 기프트 셀렉션.
- 23 THE WATCH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품격 있게 만들어줄 워치 컬렉션.
- 24 THE BEAUTY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안하는, 소중한 이들을 위한 뷰티 기프트 아이템.
- 25 TOP CLEANSERS 안전한 성분은 기본이고 다양한 효능을 갖춘 샴푸. 성분과 효능을 꼼꼼히 따져 내게 맞는 샴푸를 골라볼 것.
- 26 TRUE MATCH 사선을 시로짓는 최신 잇백과 지금 가장 매력 넘치는 다양한 세대의 여성들. 어느 봄날 그들의 특별한 조우.
- 34 EASY&CHIC 로퍼인가, 슬리퍼인가 긴가민가한 이 독특한 슈즈의 정체는? 이를 신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장점은 발을 싣고 시 넘어보자마자 편안함과 멋스러움에 반하게 된다는 것. 물론 당신 이 주목해야 할 로퍼와 슬리퍼의 만남, 슬리퍼로 로퍼 컬렉션.
- 35 URBAN ROMANCE 다채로움을 자랑하는 스와로브스키가 배우 박신혜를 뮤즈로 내세워 새로운 2017 S/S 주얼리 컬렉션을 소개한다.
- 36 LUXE TABLE 한두 개만으로도 충분하고 멋스러운 테이블을 완성해 주는 유니크한 테이블 피스를 소개한다.
- 37 CHERRY BLOSSOM 빨가에 정통 밀 맥주 호가든(Hoegaarden)이 빛깔을 담은 특별한 맥주를 봄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봄을 상징하는 빛깔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 호가든 체리 블로섬 가이드로 초대한다.
- 38 COCKTAIL TIME 여자의 손목을 빛나게 하는 주얼리 워치는 섬세한 세공과 컬러풀한 스톤으로 이루어진 예술품 그 자체다.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들어줄 각테일 워치 컬렉션.
- 39 THE ORDINARY EXQUISITE 미술계의 떠오르는 신예 아티스트 조각사와 까르띠에 자스트 앵 글루 컬렉션의 컬래버레이션.
- 40 WRITING IS A GIFT 해마다 선보이는 몽블랑(Montblanc)의 유니세프(UNICEF) 컬렉션은 올해 뉴욕 주립 도서관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Writing is a Gift'를 선보였다.
- 42 EDITOR'S PICK 새로 나온 뷰티 제품 소풍을 앞두고 있다면, 스타일 조선큐노가 추천하는 뷰티 신제품을 눈여겨보자.

Style 조선일보

Issue.157 May 2017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쳐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수민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만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라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큐노)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큐노)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큐노)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BVLGARI ROMA

B.zero1
DESIGN LEGEND by Zaha Hadid
BVLGARI.COM #DESIGNLEGEND



Fashion
FOR THE NEXT GENERATION

유구한 역사를 지닌 명품 브랜드일수록 그들의 장인 정신과 노하우를 다음 세대까지 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보테가 베네타도 그중 한 브랜드로, 다음 세대 장인들의 창조성을 장려하고 장인의 노하우가 청년 견습생들에게 전승되었던 르네상스 시대의 '보테가(이탈리아어)처럼 지식의 계승을 위한 전통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바로 하우스의 비전과 제품의 품질, 창의성을 발전 시키는 것뿐 아니라 이탈리아 제조 산업의 헤리티지가 지닌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인적 가치의 고유성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다음 세대의 현대적인 장인을 교육하기 위해 베니스 IUAV 대학교(The University IUAV of Venice)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 이로써 전 세계에서 선발된 12명의 학생에게 2017년 3월 말부터 3개월간의 신규 대학원 과정을 통해 핸드백 디자인 및 액세서리 개발(bag design & accessories development) 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보테가 베네타와 베니스 IUAV 대학교의 협업으로 2013년에 이어 2015년에 시행한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교육과정으로,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기술 및 장인 정신을 접목할 수 있는 완전한 현대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두 기관의 노력을 구현한 것. 선발된 학생 13명과 교사, 그리고 장인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 과정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대학 수업과 지식 전승의 전통적인 방법을 결합해 하이엔드 가족 핸드백 개발, 제작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다룬다. 핸드백 외에도 처음으로 옷, 슈즈, 주얼리 등 보테가 베네타의 다른 제품 카테고리도 다룰 예정이다. 수업의 첫 단계는 문예 박물관에서 진행하며, 연구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 컬렉션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보테가 베네타가 1968년 창립된 비엔차 인근의 몬테펠로 비엔치노 보테가 베네타 이탈리아 부근에서 진행된다. 보테가 베네타 마스터 장인과 기술자의 지원으로, 패턴 제작부터 구성 기법, 마무리 제작 기법 등 각 학생들의 최초 캡슐 컬렉션을 구성하는 두 가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실습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에게는 보테가 베네타 부티크를 방문해 무수한 광경, 메탈 디테일 제작의 전문 살롱을 돌아보고, 고객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문의 02-515-5840 에디터 이재연

Jewel
WRAP IT

간결하게
모더니티를 찾다.
볼드 브레이슬릿.

(위부터 아래로) 뭇에서 영감을 받은 대담한 디자인의 자스트 옐 골드 브레이슬릿 8만2천원대 **가르데메**, 옐로 골드 불이 인상적인 하드웨어 비아페스 브레이슬릿 2만5천원대 **타사키**, 클로버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블랙리 클로버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반블리프 아펠**, 핑키리 더블 로고와 나선 모티브, 다이아몬드 세팅이 아름다운 비제루인 브레이슬릿 1천4백2천원대 **블라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라쉬 골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사베인 주얼리**, 옐로 골드가 진주를 절묘하게 감싸고 있는 M/G 타사키 아틀라지 브레이슬릿 3만2천원대 **타사키**, 에디터 **베아진**



Beauty
GET HER LIPS

TV 속 그녀가 바른 립스틱 컬러가 궁금하다! 워너비인 그녀들이 발라 풀절 대란을 일으킨 화제의 립스틱이 여기 모두 모였다.

(위부터 아래로) 포털사이트는 물론 SNS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샵리, 그녀가 공식적으로는 물론 SNS상에서 자주 비르는 발렌 레드 립스틱은 바로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리브 립스틱**이다. 그중 오랜 자랑스러운 300호 핑크 스티크 컬러는 백성공주같이 하얀 피부와 도톰한 입술을 돋보여 주는 키 컬러. 매끈한 질감이 탄 미지 탄력을 비논 듯 입술에 착 달라붙어, 톡톡 튀는 생기가 있는 레드 컬러로 피부 톤이 어두운 사람도 예쁘게 비칠 수 있다(3.5g 3만9천원). 장차 립스틱이라는 애정이 있는 해라 루즈 울릭, 럭셔리 디자인 브랜드 위고 & 빅토르의 컬러라이프 라인에 완성한 라블라린 페퍼 라블라 립스틱이다. **헤라 루즈 울릭 & 빅토르 라인**의 **컬러라이프 립스틱 133호 체리 블러쉬**는 입술을 살려주는 화사한 핑크 컬러를 선호하는 배우 전지현의 데일리 립 컬러(3g 3만5천원). 로맨틱 드라마 (시절) 그려냄에서 배우 스펀이 가 발라 화제가 된 **오워 립스틱 컬러 그라임**은 밝은 로즈 핑크 컬러로, 눈에 보이는 컬러 그라임 선명하게 발색되고 립밤처럼 촉촉한 질감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선명한 컬러가 12시간 지속된다(3g 3만3천원). **디올 아드립 립 타투 76호 나추럴 체리**는 여자 아이돌 가수 중 가장 핫한 현의 톡톡 튀는 립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주인공. 재발광에서도 잊을 수 없는 미지 타투를 한 듯 컬러가 10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고, 7피피 미시거나 양치를 해도 입술에 컬러가 남아 있을 만큼 방수력과 유지력이 뛰어나다(6ml 4만2천원). 차분하면서 여성스러운 코랄 핑크 컬러의 **시세이도 루즈 루즈 RD305 마린**은 드라마 (한 번의 애)에서 배우 조아영이 바른 립스틱으로, 신과유면서 우아하고 단아한 립 컬러가 단연 토포이다(4g 3만9천원).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를 지닌 배우 김고은이 선택한 립스틱은 **원뿔 압출형 루즈 187호 프렌치 코랄**. 공식석상에서 나일에서도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그녀는 입술에 활짝 생기를 더해 줄 이 여성스럽고 상쾌한 코랄 컬러를 가장 좋아한다(3.4g 4만2천원). '도깨비' 열풍을 일으킨 정도로 큰 인기와 화제 속에서 중영한 드라마 (도깨비)에서 배우 유인나가 바른 립스틱 또한 큰 화제가 되었다. 이는 바로 **아리안 립스틱 퓨어 002호**다. 생기 넘치는 오렌지 컬러로 그녀의 깨끗하고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해 어신을 두들었다는 후문(3.8g 3만3천원) 에디터 **권유진**

INSIGHT

편잡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Hot spot
WELCOME TO SEOUL!

동시대를 사는 가장 모던하고 세련된 여성의 상징, 프랑스 명품 브랜드 셀린느(Celine)의 한국 첫 플래그십 스토어가 지난 3월 10일 청담동에 오픈했다. 이는 아시아 첫 단독 매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패션 도시로 급부상한 청담동의 명성을 이어갈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단번에 자리매김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셀린느의 백 컬렉션은 물론, 브랜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류 컬렉션까지 모두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게 더욱 매력적이다. 브랜드 특유의 모던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여성들이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중 가장 입고 싶은 옷으로 꼽는 셀린느의 매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먼저 1층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스물 러더 제품부터 가방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제품이 전시되어 있고,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의류(RTW)와 슈즈가 전시되어 있으며 편히 있을 수 있는 라운지와 프라이빗한 VIP 공간이 펼쳐진다. 자세히 살펴보면 셀린느가 이 공간 하나하나를 채우기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공들였는지 알 수 있다. 1층 바닥은 콘크리트와 작은 자갈로 이루어진 테라조(terrazzo)로, 2층은 또 다른 콘셉트의 대리석 마블로 제작했다. 이는 모두 프랑스 본사에서 직접 공수한 작품이라고. 또 스토어의 벽면은 오프 화이트 색상의 마모리노 플라스터(marmorino plaster) 석고로 마감했으며 모든 선반은 나보나 트라베르틴(navona travertine)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곳곳에 옐은 적갈색의 벽돌식 파사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오닉스, 나무, 콘크리트 큐브, 세라믹 스톤 등과 함께 여러 종류의 화분도 생기를 더한다. 뿐만 아니라, 덴마크의 아티스트 포스(FOS)가 디자인한 램프, 콘크리트와 나무로 제작한 의자, 적갈색 화기 등과 같은 비스포크 오브제가 셀린느의 세련된 스타일을 더욱 돋보여 준다. 이렇듯 정교한 라인과 세심한 디테일, 기능성을 부각하는 한편, 무게감과 여성스러움을 스토어 전반에 부여했다. 새로운 공간을 위한다면 영원함과 모더니티, 견고함과 편안한 힘이 동시에 느껴지는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을 둘러보길. 문의 02-6979-0607 에디터 이재연



ART. VPR177 / SPR59T PRADA.COM

Exhibition
감성의 불을 만드는 (송고의 건국)+패티 보이드 사진전: ROCKIN' LOVE展

비틀스 멤버였던 조지 해리슨과 살아 있는 전설 에릭 클랩튼의 뮤즈인 모델이자 사진작가 패티 보이드의 전시 (패티 보이드 사진전: ROCKIN' LOVE)가 서울 상수동 예술팩토리(S. FACTORY)에서 오는 8월 9일까지 열린다. 브라질시 팜 역사를 아는 이들에게는 이미 꽤 유명한 라브 스토리의 주인공 패티 보이드의 작품을 통해 당시 인기였던 대중문화의 정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pattieboyd.modoo.ai).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20여 점을 비롯해 1백 점에 넘는 사진 작품을 소개하는 이 전시는 1960년대 영국 런던의 흥겨운 뮤지션들의 만남과 헤어짐, 그 이후 패티 보이드 삶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풍경 사진의 진정하면서도 무게 있는 울림을 줄이던 자연과 환경, 에너지를 둘러싼 근원적인 주제를 다룬 한성필 작가의 전시 (송고의 건국 (INTERVENTION))을 기획했다. 한진그룹 신하 일우재단에서 주최하는 제7회 일우사진상 '올해의 주목할 만한 작가' 출판 부문에 선정된 수상 기념으로, 서울 중구 일우스페이스에서 6월 14일까지 열린다. 지구온난화로 높아지는 남북극과 알프스 빙하, 프랑스 원자력발전소 등의 모습을 36점의 대규모 사진 작업으로 풀어낸 이번 전시는 보전과 개발 사이에 놓인 환경의 현주소를 인식하게 만든다. 대림미술관에서는 일상의 이면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포착한 사진과 자유분방한 일러스트로 힘스틸들의 개성 넘치는 라이프스타일을 기록하는 작가 토드 셀비(Todd Selby)의 작품 세계를 접할 수 있는 (The Selby House: #즐거움 나의 집)展이 오는 10월 29일까지 계속된다. 이밖에 지난해 서울 아리모던아트뮤지엄(www.aramuseum.org)에서 개최해 큰 호응을 얻은 (DAVID LACHAPPELLE: IN-SCAPE OF BEAUTY)전은 열린 관심 덕에 전시 기간을 연장해 5월 28일까지 개최된다. 에디터 **고성연**



for her
Selection

사랑스러운 원피스부터 경쾌한 컬러와 패턴으로 꾸민 패션 액세서리 아이템까지. 당장 떠나도 좋을, 패셔너블한 음악 페스티벌을 위한 룩. *photographed by kim do hyun*

그린 컬러 렌즈가 싱그러운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가격 미정 샤넬.

화이트 티셔츠나 데님 재킷에 포인트 액세서리로 재킷인 헤어밴드 51만원 구찌.

백합 모티브의 가죽 브레이슬릿 52만원대 로에베.

페스티벌 룩에 경쾌한 포인트를 줄 볼드체인 네크리스 2백만원대 프라다.

화려한 프롤링과 스웨이드이건나 러블리한 느낌을 주는 엘디스 1천원대 발렌타노 가운바니.

다양한 도형 모티브의 볼드한 드롭 이어링 가격 미정 샤넬.

향상색의 프랑키 장식이 돋보이는 선글 59만원대 스투아른 와이츠먼.

페이올리 리본을 두른 라피아 소재의 1백만원대 에르메스.

세 가지 다른 가죽 소재를 톤온 톤 컬러로 매치한 달링 백, 22.5X15cm, 7백만원대 보테가 베네타.

헤트 모티브가 사랑스러운 라브 브레이슬릿 62만원대 핀도라.

다양한 컬러와 소재로 스포티한 무드를 자아내는 청키 힐 가격 미정 모스카노.

보송보송한 핑크 바버 피로 장식한 아이트 케이스 53만원대 와이츠먼 앤 줄리 by 10 포르스 코모.

패치 장식으로 꾸민 핑크 에피 가죽 소재 백, 28X18cm, 5백27만원 루이 비통.

샤넬 02-543-8700
구찌 1577-1921
로에베 02-6906-3470
셀만노 02-549-6631
프라다 02-3218-5331
에르메스 02-542-6622
루이 비통 02-3432-1854
모스카노 02-6906-3892
10 포르스 코모 02-3018-1010
로저 비비에 02-6906-3370
몽클레르 02-514-0900
보테가 베네타 02-515-5840
스투아른 와이츠먼 02-3479-1528
발렌타노 가운바니 02-543-5125
핀도라 1688-5501

데님 소재에 스웨이드 장식을 더해 화려함을 더한 앵글 스트랩 힐 3백20만원대 로자 베네타.

허리띠를 이용해 끈을 조일 수 있는 앙상블은 풀리워 배너 코트 2백20만원대 몽클레르.

Publicis Et Noue



OBJECTS FOR LIFE
HERMÈS
PARIS



for him
Selection

봄기운 가득한 뮤직 페스티벌이 몰려온다. 이번만큼은 당신도 록 스피릿 충만한 페스티벌 룩에 도전하고 싶다면 주목해보자.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다이노사우어 패턴이 돋보이는 알타리아 3533071 가격 가장 저렴한 7만 원대.

블루 색상의 미러 렌즈 선글라스 1백만 원대 가격대에.

핸드 프레스링으로 완성한 스트라이프 패턴 재킷 9만 원대.

패스티벌 무드를 만끽할 수 있는 화이트 컬러 패드라 가격 미정. 발렌티노 7만 원대.

브라운과 그린 컬러가 조화를 이룬 스니커즈 90만 원대.

이탈리아의 최고 수제화가 제조된 모든 다리를 바랄 것 다인인 에를 유키 에르메스 밴드 78만 원대.

휴대폰과 카드 지갑 등 소자품을 최소화해 보관할 수 있는 힙프 색, 30X16cm, 89만 5천 원. 발렌시아가 by 10 코스모 코모.

프린트 디테일이 돋보이는 데님 스트랩 샌들 가격 미정.

다양한 색상 중을 패셔블 감성인 블랙과 화이트를 선택한 10 코스모 코모. 아사시노 이세영, 김수민. 에터 이서연.

보기만 해도 시원한 아자수 프린트가 눈에 띄는 재킷 1백32만 원. 몽클레르.

로맨틱한 플라워 패턴의 민트 색상의 셔츠. 10만 원대.

본인 스타일과 어울리는 다양한 컬러의 키링. 10만 원대.

블루 색상의 카우플라워 패턴 반지갑 36만 4천 원. 아. 테스토니.

신뢰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10 코스모 코모.

에르메스 02-542-6622
가르미에 1566-7277
렌디 02-2056-9023
프라다 02-3218-5331
몽클레르 02-514-0900
자미주 02-3443-9469
구찌 1577-1921
0914 02-2056-0914
아. 테스토니 02-554-4310
토즈 02-3438-6008
루이 비통 02-3432-1854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발렌티노 가리바니 02-6905-3610
10 코스모 코모 02-3018-1010

화려한 패턴과 컬러가 어우러진 백팩, 28X40cm, 3백만 원대. 크리스찬 루부탱.



COLOMBO
1955
VIA DELLA SPIGA
MADE IN ITALY

DOSAN FLAGSHIP STORE HOTEL SHILLA ARCADE
SHINSEGAE MAIN GANGNAM CENTUN CITY
HYUNDAI MAIN COEX MOKDONG BUSAN DAEGU ULSAN
LOTTE AVENUE AVENUE WORLD TOWER
GALLERIA LUXURY HALL EAST AK PLAZA BUNDANG STORE
T 02-511-2192 WWW.COLOMBOVIADELLASPIGA.COM



책의 한숨 달래는 ‘경계 확장형’ 행보들

“하루키 책이 1백만 권 팔리기보다는, 한국 작가 1백 사람 책이 1백 군데 출판사에서 나와 각각 1만 권 팔리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의 이런 글을 보고 심히 동감한 적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출판 세계에서도 저자 브랜드를 업은 블록버스터의 법칙이 꾸준한 위세를 발휘하는 게 현실이다. 서점업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 브랜드 서점이 장악하고 있는 책 세상에서 동네 책방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취향 저력을 외치며 고군분투하는 독립 서점, 소규모 자금과 인력으로 꾸러가며 나름의 존재감을 발휘하는 1인 출판사의 행보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요즘이다.

“요즘 젊은 애들은 책을 통 안 읽어.”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한탄이다. 커피값은 좀처럼 아끼지 않으면서 마음의 양식이 될 책에 투자하는 데는 인색하다면서 혀를 끌끌 차는 어른들의 모습은 세계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그러나 사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책의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책은 수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문명과 지식의 진화를 오래도록 이끌어온 매체 아닌가. 그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시들어가는 ‘쌍퐁’으로 내버려두는 냉정한 태도를 취하기에는 너무도 위대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 너도나도 ‘책 읽는 사회’를 외치기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서점이나 출판사 같은 공급자 진영에서는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푸념하지만, 수요자인 독자들은 과연 잠시라도 카페인보다 행복감을 선사할, 금쪽같은 시간을 내줘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양서(良書)가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냐는 반문을 한다. 출간된 지 한참 지난 책도 할인 대상이 되지 않는 도서 정가제가 외려 부담이 된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카·페·인 우울증과 디지털 디톡스, ‘웃픈’ 현실
물론 새롭고도 좋은 책은 여전히 존재한다. 열혈 독자도 존재한다. 비록 책을 잘 접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굵게 품고 있는 잠재 독자도 분명 꽤 많을 터다.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닐까 싶다. TV와 PC, 게임기, 스마트폰 등 온갖 디지털 기기에 접점이 둘러싸여 있는 우리네 스마트 세상. 애써 멀리하려고 해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인터넷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이퍼텍스트’에 노출돼 있다. 전통적인 텍스트가 아니라도 항상 유희의 손길을 보내는 네트워크 세상의 읽을 거리, 볼 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단지 ‘좋은 책’이라는 형태가 아닐 뿐, 어쩌면 넘칠 정도로 많은 정보를 흡수하고 있기에 그걸 소화하기에도 힘이 달리는지 모른다. ‘디지털 피로’가 사회문제가 될 정도이니 말이다. 심지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저도 모르게 타인과 비교를 일삼으며 ‘행복 강박증’을 겪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했다. 또 컴퓨터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수많은 정보의 연결 고리를 제공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깊고 지속적인 사색을 유도하지는 못하고, 당연히 사고를 통째로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에 따라 일부러 스스로를 비(非)네트워크 환경으로 밀어 넣어 강제 휴식을 취하면서 평온과 집중력을 되찾는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라는 개념도 덩달아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요법 중 하나로 ‘좋은 책 읽기’를 추천하고 있다. 단 몇

시간이라도 스마트 기기에서 벗어나 종이 책의 활자에 집중하는, 어쩌면 아주 간단한 일이 모처럼 큰맘 먹고 도전해야 하는 과제 혹은 비결처럼 여겨지는, 그야말로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종이 책의 부활, 먼 나라 얘기?
이렇듯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지친 영혼을 달래려는 독자 수요가 커지고 있어서일까? 최근 미국에서는 종이 책이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는 소식이 들린다. 미국출판협회(AAP)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페이퍼백 서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10억1천만달러, 하드커버(양장본) 서적은 0.9% 증가한 9억8천9백만달러에 이르렀다고. 대조적으로 e북 매출은 20% 하락했다. 또 미국 서적 매출이 2014년 전년 대비 1.6% 감소한 이래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눈에 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내내 감소 일로를 걸어온 상황이라 예전의 규모를 회복한 건 아니지만, 나름 의미 있는 변화다. 전자 서적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주요 출판사들의 e북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전자 기기 사용을 더는 늘리지 않거나 줄임으로써 디지털 피로를 극복하려는 수요 덕분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또 책 시장의 지형을 바꿔놓은 온라인 서점의 포화 속에서 꾸준히 제 갈 길을 모색하던 오프라인 서점의 노력도 빛을 발하는 듯하다. 특히 저마다 다른 개성을 내세운 독립 서점의 반격이 눈길을 끈다. 니혼 게이저이 신문 등 주요 언론 보도를 인용하자면 2009년 1천6백51개이던 미국 독립 서점 숫자는 2016년 2천3백11개로 증가했다. 아마존 같은 거대한 온라인 서점업계의 공룡, 그리고 이에 대적하기 위해 한층 대형화 추세에 합세하던 전통 오프라인 강자의 틈바구니에서 독립 서점, 동네 서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많은 이들이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자리매김한 미국 포틀랜드의 파월즈 북스(Powell's City of Books)가 있다. 독립 서점으로 미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파월즈 북스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1백만 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고 있는데, 종교 책, 새 책, 양장본 같은 두꺼운 책과 얇고 저렴한 책을 함께 진열해 다양한 이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다. 또 같은 책이라도 표지 유무와 훼손 상태 등을 따져 가격 차이를 두는 유연성도 발휘한다.

책이 아니라 문화를 제인하는 공간의 부상
사실 이 같은 오프라인 서점의 부활은 예고된 바 있다. 온라인상에서 지적 자본이 될 수 있는 유료 콘텐츠를 파는 마켓 플레이스인 퍼블리셔 퍼낸 <프랑크푸르트 북 페어 리포트>에도

미국 시장에서는 오프라인 서점의 파이가 줄어들고 그나마 남은 서점은 모두 대형화되던 추세는 이제 종착점에 가까워진 듯하다는 전망이 나와 있다. 단지, 서점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파월즈 북스처럼 지역성을 바탕으로 대형 서점이 제공할 수 없는 끈끈한 독자 커뮤니티를 창출해내는 미국 독립 서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주말이면 ‘도깨비 여행’으로 찾은 이들이 많은 일본의 쓰타야(TSUTAYA) 서점 등을 비롯해 라이프스타일을 부각하는 새로운 유형의 오프라인 서점도 있다. 쓰타야 서점 같은 경우에는 따스한 느낌이 드는 목재 선반에 이국적인 조명으로 여유를 샘솟게 하는 공간도 그렇지만, 제공하는 콘텐츠 자체가 남다른 것으로 유명하다. 예컨대 요리책 코너에 파스타 책이 있다고 치면 그 옆에는 이탈리아 파스타 면, 소스, 그리고 디자인 브랜드의 프라이랜드도 있다. 일본인이려면 절반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멤버십 카드(포인트)는 서점뿐만 아니라 방대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수많은 제휴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고객에게 매력적인 편리함과 감성을 선사한다는 가치는 온라인 서점인 오프라인 서점인 독립 서점인 서점 산업의 필수 요소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추세를 뒤따라가는 움직임이 보인다. 온라인 서점의 강세가 압도적으로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최근 종이 책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오프라인 서점과 독립 서점이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1백 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종로서적이 ‘여성 고객’을 주 타깃으로 삼는다는 선언과 함께 14년 만에 문을 열었고, 교보문고는 쓰타야서점을 벤치마킹해 쇼룸, 휴식, 사교 등을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포괄한 서점을 일산점, 광교점에 이어 최근 합정점까지 열었다. 전통 있는 출판사 한길사는 얼마 전 서점과 아트 갤러리, 강연장과 회의실 등을 한데 묶은 다목적 문화 공간 ‘순화동천을 서울 중구 순화동에 선보였다. 책뿐 아니라 미술, 음악, 담론 등이 함께하는 문화적 아지트를 염두에 뒀다고. 미국이 나 일본의 사례를 비쭙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종이 책이 마냥 한숨만 쉬란 법은 없다.

경계의 확장, 어디까지? 작은 서점+1인 출판물 둘러싼 열기
그런 맥락에서 규모는 작지만 저마다 다른 색깔의 콘텐츠와 인상적인 프로그램을 내세우는 독립 서점도 주목할 만하다. 사실 수치로만 볼 때 전반적인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다. 국내 시장에서 지난 10년간 대형 서점의 비중은 7.6%에서 13.4%로 커졌지만, 약 66㎡(20평) 미만의 소위 ‘동네 책방’ 비중은 급감했다. 2005년 1천7백79개이던 소규모 서점 수가 2015년 6백85개로 10년 새 3분의 1로 줄었으니 말이다(2016 한국서적협회).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상당수 독립 서점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면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몇몇 예를 들자면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 있는 문학 서점 고요서사 같은 곳은 주민들이 외인을 즐기면서 책 읽기 모임을 갖고 토론을 벌이는 등 각종 프로그램을 꾸리면서 동네의 명물로 자리하고 있다. 양재천 근처에 있는 마이북은 여행 에세이, 자기 계발서, 심리학 서적 등을 다루는 북 카페 겸 서점인데, 이곳에서 구입한 책을 되팔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정가로 판매하지만 그중 10%를 적립금으로 반영해 인터넷 서점과 동일한 할인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다 읽은 책은 70%에 되팔 수 있는데, 돈이 아니라 커피 마일리지로 돌려받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책 판매는 정체돼 있는데도 책을 만드는 쪽의 움직임은 나름 활기를 띠는 점이다. 특히 저자 발굴과 참신한 콘텐츠 창출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듣는 대형 출판사가 아니라 소규모 브랜드나 1인 출판업의 존재감이 단연 눈에 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 출판사 중 1인 출판업체(4명 이하 직원이 일하는 출판사를 일컫음)가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3이 넘는다(2015년 기준 76.1%). 그렇지만 유통과 마케팅 면에서 이들의 투자 역량은 보잘것없다. 하지만 ‘취향’의 시대답게 다채로운 독자 기호를 겨냥한 콘텐츠가 가끔씩, 그리고 조금씩 더 자주 ‘중박’, ‘대박’을 일궈내고 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와 2위 자리를 <언어의 온도>와 <자존감 수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선보였다가 입소문에 힘입어 ‘역주행’으로 치고 올라갔다는 것, 그리고 둘 다 1인 출판사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1인 출판사는 인력과 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한 분야에 집중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책 한 권 한 권에도 훨씬 더 성의를 보일 뿐만 아니라 제반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생태계 전체를 봐도 다양성을 키울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1인 출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는 현상에는 확실히 명암이 드리워 있는 듯하다. “한때 나도 카페나 차려볼까? 하는 마음으로 카페 창업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요즘은 나도 출판업이나 해볼까?, 심지어 나도 책이나 써볼까? 하는 정서가 엮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백세 시대에 살 길을 찾다가 이쪽에도 눈길을 보내는 거죠.” 현재 1인 출판 기획을 하고 있는 전직 출판사 편집자의 말이다. “일본에 성공적인 1인 출판 사례가 있지만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 또는 압도적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솔직히 우리나라 1인 출판사는 적은 투자로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인건가 한 건이 터지겠지, 하는 심정으로 임하는 이들이 많아요.” 물론 도전 정신은 좋다. 하지만 아직도 ‘1세가 온전히 소화되지도 못한 채 잇하는 책이 대다수’라는 게 엄연한 현실임을 기억해둬야 할 듯싶다. **서교고성면**

(왼쪽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리본 장식의 바라 플랫 슈즈 60만원대 **살비토레 페라기오**, 문의 02-3430-4864
 양가죽으로 만든 머스터드 컬러 클러처, 20X15cm, 80만원대 **몽클레르**, 문의 02-514-0900, 체인 장식 화이트
 슬라이드 슈즈 27만원 **마이클 마이클코어스**, 문의 02-3479-1852, 독특한 짐금장치가 돋보이는 핑크 컬러 미니 백
 85만원 **아이그너**, 문의 02-546-7764, 핑크 프레임에 미러 렌즈를 장착한 선글라스 30만원대 **레이펜 by 록스타가
 코리아**, 문의 02-501-4436, 크리스탈 장식의 볼드 네크라스 46만원 **스외르브스키**, 문의 1661-9060



(왼쪽 스타일링 아이템) 바건디 컬러 원피스 54만5천원,
 실크 스카프 8만5천원 모두 **레트 바이티**,
 문의 02-546-7764 (맨 위부터 아래로) 페이턴트
 소재의 미니 램페트 백, 16.5X13cm, 3만만원대 **델보**,
 문의 02-3449-5916, 레드 레이스 포인트 70101 백,
 19X15cm, 2만67만원 **벤디**, 문의 02-2066-9023,
 리본 장식의 블랙 바라 플랫 백 24X16cm,
 2만만원대, 바즈 디테일 슬더 스트랩 60만원대
 모두 **살비토레 페라기오**, 문의 02-3430-4864

the FASHION WOMAN

<스타일 조선헌보>가 섬세한 안목과 기준으로 제안하는,
 여성을 위한 멋스러운 패션 기프트 가이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고급스러운 악어가죽 소재의 옐로 장지갑 3백78만원, 블루와 레드 카드 지갑
 각 78만원 모두 **몰론보 비아 델라 스피가**, 문의 070-7130-9206, 핑크 크라쉬 글로스 미니 백, 23X16cm,
 1백25만원 **바오리오**, 문의 02-772-3407, 리본 모양 주름이 잡힌 토트백, 30X16cm, 53만원대 **0914**,
 문의 02-2066-0914, 레몬 컬러 염소가죽 소재의 에스피드리유 95만8천원 **피비이나 필리피**, 문의 02-6905-3626



스타일링으로 유망성
 에디터 **베라진**, 편집자 **이지연**
 사진: **이민우** (02-939-9809)
 기구: **한신 류빙** (02-939-9809)

(맨 위부터 아래로) 레드 컬러 페이턴트 소재 웨지힐 1백만원대
보테가 베네테, 문의 02-515-5840, 로고 디자인 스트랩
 질리 슈즈 3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핑크 스웨이드 소재의 태슬 장식 로퍼 62만5천원 **아 테스토나**,
 문의 02-554-4310, 티두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사이러
 훈찬 프린트 로퍼 82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화이트 가죽 스트랩 샌들 23만원 **락포트**, 문의 02-6137-5100
 (오른쪽 스타일링 아이템) 핑칭 디테일의 셔츠 원피스 45만원
마이클 마이클코어스, 문의 02-3479-1852

GARSUBIL BAGSTAGE 02 3444 0914 / DOSAN FLAGSHIP STORE 02 2056 0914



WWW.0914LOKBOOK.COM

(왼쪽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GG 시그니처 가죽 지갑 55만원 **구찌**, 문의 1577-1921, 프린트가 돋보이는 블랙 장지갑 60만원대 **프라다**, 문의 02-3218-5331, 데님 소재 캠프 모자 12만원 **랑방스포르츠**, 문의 02-3438-6252, 플라워 프린트 선글라스 케이스 20만원대 **프라다**, 투 브라지 미러 선글라스 30만원대 **레이벤 by 루스타카 코리아**, 문의 02-501-4436, 송아지가죽 소재의 클러치, 35X24cm, 80만원대 **프라다**, 테크페리노 레이서 스니커즈 60만원대 **Z제너**, 문의 02-3479-6297



the FASHION MAN

실용적인 아이템부터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패셔너블한 제품까지, 남성을 위한 기프트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송아지가죽으로 만든 클러치, 35X24cm, 79만5천원 **아.테스오니**, 문의 02-554-4310, 네이비와 버건디 컬러가 조화로운 반지갑 49만원, 카드 지갑 27만원 **모두 버버리**, 문의 080-700-8800, 핑크 테스타 레이더 지갑 80만원대, 카드 지갑 30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제르**, 문의 02-3479-6297, 세미 글로스 송아지가죽 소재의 브라운 스니커즈 1백만원대 **브루넬로 쿠치넬리**, 문의 02-3448-2931, 악어가죽 특유의 고급스러운 광택감이 돋보이는 멜로, 그레이 벨트 각 89만원 **클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문의 070-7130-9206



(왼쪽 스타일링) 데님 셔츠 35만원, 네오프렌 프린트 스웨트셔츠 28만원, 정퍼 65만원, 팬츠 35만원 **모두 랑방스포르츠**, 문의 02-3438-6252 (맨 위부터 아래로) GG 로고 프린트 케이스 백, 26X20cm, 80만원 **구찌**, 문의 1577-1921, 포켓 장사의 매트 카드 투톤 컬러 도큐먼트 케이스 백, 34X24cm, 2백만원대 **보타가 베네타**, 문의 02-515-5840, 송아지가죽 소재의 브리프케이스, 40X28cm, 1백20만원 **보스 맨**, 문의 02-515-4088



(맨 위부터 아래로) 스텔라시 프린팅으로 모인트를 준 스니커즈 76만원 **버버리**, 문의 080-700-8800, 블루 컬러 에스퍼드라유 7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나일론 소재의 라퍼 장신 스모츠 스니커즈 70만원대 **프라다**, 문의 02-3218-5331, 브라운 가죽 슬림은 28만원 **락포트**, 문의 02-6137-5100 (오른쪽 스타일링) 화이트 코트 셔츠 35만원, 데님 팬츠 43만원, 라벤과 실크 혼용 체크 재킷 1백 25만원 **모두 레이**, 문의 02-3479-1649

스타일링: 조은정, 헤어: 김민지, 뷰티: 이서연, 아티스트: 이영, 김수민

www.hamiltonwatch.com



INTO THE DREAM



NAVY PIONEER
AUTOMATIC SWISS MADE

HAMILTON
AMERICAN SPIRIT ■ SWISS PRECISION

BOUTIQUE 현대백화점 천호점 MONO STORE 롯데백화점 광복점 중동점 HOUR PASSION 롯데월드몰점 갤러리아백화점 대전점 수원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경기점 광주점 김해점 센텀시티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충청점 하남점 AK플러자 구로본점 분당점 수원점 원주점 평택점 현대백화점 동구점 대구점 디큐브시티점 목동점 미아점 신촌점 울산점 중동점 충청점 킨텍스점 판교점 롯데백화점 구리점 노원점 대전점 동래점 본점 센텀시티점 스타시티점 영등포점 인천점 청량리점 평촌점 DONGWHA DFS LOTTE DFS MAIN COEX WOLDDTOWER BUSAN JEJU SHILLA DFS SEOUL HDC JEJU SHINSEGAE DFS MAIN INCHEON AIRPORT CENTUMCTY GALLERIA DFS 63 ENTAS DFS DOOTA DFS



the LIVING

라이프스타일을 한결 멋지게 만들어줄 실용적이면서도 스마트한 기프트 아이템을 찾고 있다면, 이 페이지를 눈여겨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MINNE WACHS from good day
KENOSHA HOME BY SIMMONS
 The Final Touch For The Festive
 www.SIMMONS.co.kr
 Love The Nature

영국 출신 유명 조각가 에런 그레고리의 특별한 방법으로 탄생한 공예품의 크리стал로 만든 1백만원대 **스틸로브스키**. 문의 1661-3000

이탈리아 정통 에스프레소를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초슬림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EC680.M 49만9천원 **드롭키**. 문의 080-488-7711

부드러움과 스파이시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우아한 향의 파이나스트 위스키. 200ml, 9천7백원 **발렌타인**. 문의 02-3466-5700

목재를 잘 다루는 덴마크 디자인 브랜드 브로더 크루거의 탄생 1백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정 수량으로 만든 최상급 나무판. 나무 흔을 모아 1백19만원대 **브로더 크루거 by 덴스크**. 문의 02-544-6058

프랑스의 예술가 에티엔느 로랑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프랑스의 예술계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에티엔느 로랑**. 문의 02-542-7822

브렌드를 상징하는 컬러와 솔라(solar)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우리 4천개 양력 조형 장식품. **아라**. 문의 02-3448-0266

0.3mm의 아주 얇은 메탈릭 필름을 코팅한 플라스틱 소재에 하트만의 시그니처 가족인 벤틀리, 탠드, 레더, 디테일을 가미해 고급스러움을 부각한 인텔리 SP. **골드 컬러**. 문의 02-3438-5914 **에디터 이자현**

음을 기쁠 때 180도까지 리틀리닝이 가능해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3백57만원대 **에스올데**. 문의 1599-7121

올과래 모양의 기둥이 포인트인, 무브먼트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스타일렛 디자인의 **올인 72호트 오르골**. **루즈**. 문의 02-516-0016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해줄 **돌 페리뇽 빈티지 2006**. 750ml, 30만원대 **돌 페리뇽**. 문의 02-2188-5100

한강 서울숲 아크로

가장 높은 삶을 그려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살아보는 것입니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서의 삶이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삶입니다.



ACRO SEOUL FOREST

Residence	Prime Office	Retail	Art Center
ACRO	D TOWER	replace	ⓓ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49층 초고층의 현대적인 외관디자인 및 조망 극대화를 위한 독특하고 개방적인 공간특화 설계	대림이 만드는 복합사무공간으로 지하2층과 분당선 서울숲역이 직접 연결된 초역세권 프리미엄 오피스	개성이 뚜렷한 리테일, 식음MD와 특화된 문화공간이 모여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복합공간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다양한 전시와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더하는 공간

주택전시관 오픈 예정 | 문의 1833-8118 | www.acroseoulforest.co.kr | 시행·시공 대림산업(주)
 ※ 본 홍보물의 투시도는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속동의 색채는 향후 실제 시공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 자허 하디드와
칼라라에이신해 완성한 비자르빌 라잔드.
유명한 곡선과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문본이다. 화이트 골드 3-밴드 링
2백만원대, 핑크 골드 4-밴드 링 2백만원대,
더블 불가리 로고와 다이아몬드의 조화로운
배치가 경쾌하면서도 모던한 불가리 불가리
로안 스톰베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 링
3백만원대, 뱀 모티브를 정교하게
재현한 세르펜티 칼렉션에서 선보이는
산자가 행의 세르펜티 크로스 펜던트
네크리스 2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문의 02-2066-0171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담수 진주로 무수한 별이 피부 위에서
반짝이는 듯 별 모티브를 완성한 아브스트랙 링 2백90만원, 아이빙
2백60만원대, 마치 음표처럼 놓인 다양한 크기의 진주가 문본이
발렌스 노트 링 2백20만원대, 펜던트 네크리스 2백10만원대 모두
타사키, 문의 02-3461-5568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풍요로운
심, 온화함과 자애, 신비에 대한 약속을
뜻하는 신비로운 블루빛의 라피스 라зу리
원석을 세팅한 XS 시리즈 아틀라드 드
가르피에 네크리스 7백10만원대, 싱그러운
초록빛이 매력적인 열정적 장의성을 뜻하는
크리스프라이드 원석의 XS 시리즈 아틀라드
드 가르피에 네크리스 3백10만원대, 단순하고
광택한 듯 모티브를 리드미컬한 곡선으로
대범하게 표현해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는
자스트 앵글루 브라이슬릿 8백20만원대,
자스트 앵글루 링 2백70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문의 1566-7277



(왼쪽부터) 브랜드를 상징하는
트윈스 패턴을 정교하게 다룬 메탈
브레이슬릿과 병풍 광경의 모습을 표현한
필리핀 다이얼의 조화가 모던하면서도
유니크한 보이프렌드 트윈드 블랙 스톰
워치 5백만원대, 보이프렌드 트윈드 스톰
다이아몬드 워치 5백만원대, 럭셔리한
엘리제 티 거울 브라이슬릿을 매치한
보이프렌드 미디엄 워치 5백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문의 02-3442-0962

(왼쪽부터) 유아엔과 모던함을 동시에
갖춘 디자인으로 곡선형 케이스와
화이트 요세 다이얼, 신비로운 달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문베르즈가
특징인 드라브드 까르띠에 문베르즈
남성 워치 9백50만원, 프랑스어
말레오라는 이름처럼 열쇠 모티브의
크라운이 포인트인 클레드 까르띠에
여성 워치 5백60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문의 1566-7277



과거의 전통적인 브레이크 피플렛 워치에 대한
오리주로 탄생해 반트렌드 디자인이 멋스러운 타임
XXI 3817 크로노그래프 남성 워치, 플라미 백 기능을
갖춘 크로노그래프 칼라바 5840/2를 장착했다.
1천7백만원대 **브래이테**, 문의 02-3438-6218

the JEWELRY

반짝이는 주얼리만큼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선물이
또 있을까. 럭셔리 주얼리 하우스에서
엄선한 5월의 기프트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하트 모양의 꽃잎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볼륨감을
더한 프라블 칼렉션 브레이슬릿
2백10만원대, 아이빙 3백30만원대,
네크리스 2백10만원대 모두 **빈블리프**
아멜, 문의 00798-852-16123



샤넬의 상징적인 칼렛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코 크러쉬 링
각 2백만원대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문의 02-3442-0962



(왼쪽부터) 로맨틱한 하트 세이프의 다이아몬드 펜던트 네크리스 가격 미정, 리운드 컷
핑크 다이아몬드와 마크스 컷 다이아몬드 한 마리의 아름다움 나비를 완성한 피페
바티플라이 칼렉션 펜던트 네크리스 가격 미정 모두 **그라프**, 문의 02-2256-6810



(왼쪽부터) 간결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여성스러운 동시에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한 우먼 울트라 슬림 여성 워치 1천5백만원대, 불림평을 대표하는
모들로 더블 스텝 베젤과 로만 인덱스, 우아하고 클래식한 디자인 요소가 돋보이는
발레레 울트라 슬림 남성 워치 1천1백만원대 모두 **블랑팡**, 문의 02-6905-3367



다이아 워치의 전통을 고수하며
반영해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스포티한
매력이 빛나는 41mm 사이즈의 다이아
300M 남성 워치. 오메가 코-엑스텔
칼라바 2500을 탑재했다. 4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511-5797



낮과 밤이 바뀌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데이 & 나이트 인디케이터 특장점 34mm 사이즈의
18K 레드 골드 보행 데이 & 나이트 여성 워치
6백76만원 **몽블랑**, 문의 02-2118-6063

the WATCH

주는 이도, 받는 이도 모두 만족할 만한
엔트리 가격대의 매력적인 제품으로
준비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품격 있게 만들어줄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컬러감이 선명한 타쿠아즈 카보숑 원석을 입체감 있게
세팅해 입체감을 더한 포제션 네크리스 1천1백만원대, 0.87카트의 카날리안 비드
원석과 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제션 체인 브레이슬릿 1백30만원대
모두 **피아니**, 문의 02-540-2297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티파니의 이니셜
T를 스마일 모티브로 우트 있게 재해석한 18K 화이트
골드 티파니 T 스마일 펜던트 1백40만원대, 뉴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조물과 오브제에서 영감을 받은 티파니 하드웨어™의
대담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티파니 하드웨어™ 18K 로즈 골드
8mm 볼 링 1백10만원대, 스텔링 실버 12mm 비드 링 20만원대,
18K 로즈 골드 미디엄 링크 브레이슬릿 4백만원대,
행운의 상징인 열쇠 모티브를 아름답게 표현한 18K 로즈 골드
티파니 하트 키 펜던트 1백30만원대
모두 **티파니**, 문의 02-547-9488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크기가 다른 담수 진주로
유니크하고 현대적인 별 모티브를 완성한 아브스트랙
스타 펜던트 2백80만원대 **타사키**, 카리칼라 욕장의
모자이크 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부채꼴의 유려한
곡선이 유니크한 코랄 루브릴 샤넬의 대바스 드림
네크리스 2백만원대 **불가리**, 로맨틱한 하트 세이프의 18K
화이트 골드 티파니 하트 키 펜던트 3백40만원대,
다이아몬드를 총총히 세팅한 18K 로즈 골드 티파니 T
스마일 펜던트 2백80만원대 모두 **타사키**.



(왼쪽부터) 아이코닉한 불가리 워치의 필리핀 케이스를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41mm 로모트 남성 워치 7백만원대,
방의 비늘을 형상화한 유연한 본질 구조의 링크 브레이슬릿과
크라운에 장식된 카보숑 컷 젤스톤이 아름다운 루체아 에디션
여성 워치 5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문의 02-2056-0171



(왼쪽부터) 선 브라스드 패턴을 다룬 블루 다이얼과 마-겔하고
스타일링한 메시 밴드가 조화를 이룬 마-겔 여성 워치 27만원,
빈티지 패스에서 영감을 받은 빅 사이즈의 CK 로고가 돋보이는
미니멀 남성 워치 25만원 **칼렉터블 워치 & 주얼리**,
문의 02-3479-6230



(왼쪽부터)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해군을 위해 항해용
장비를 개량했던 역사를 기념해 탄생시킨 해군들의
아이코닉 라운드 카키 네이비 모빌을 영감받은
스타일로 재해석한 카키 네이비 피아니. 어 령이다
오토매틱 워치 1백37만원, 항해용 장치인 해군
해왕 크로노미터에서 영감을 얻은 강인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카키 네이비 피아니. 어 오토매틱 남성
워치 1백22만원, 남녀 워치 모두 8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모두 **해밀턴**,
문의 02-3149-3633

시슬리 하이드-블라인드
브라이트닝 데일리 디펜스
플루이드 자외선 차단제
미세 먼지, 공기 등 외부
환경오염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준다. 50ml 33만원대,
문의 080-549-0216



(우부터) 나스 2017 나스시스트 로디드 아이세도우 팔레트 뉴트랄한 색상부터 밝고 있는 컬러까지
다채로운 텍스처를 담아 나추질 룩부터 고풍적인 메이크업까지 연출 가능하다. 16.8g 7만원대,
나스 스무드 & 프론티어 프라이머 미세 주름과 모공을 매워주어 프라이머 단계 이후 파운데이션의
안착력을 높여준다. 30ml 5만원, 문의 02-6905-3447



에디터 배민진, 권유진, 이경진

(우부터) 이슬 루센트 페이스 컨센트레이트 고농축 비타민 세럼으로 풍부한 비타민 성분으로 피부를 밝고
탄탄하게 만들어준다. 60ml 14만원대, 이슬 이마디에이트 오이스치 페이스 하이드로졸 다양한 허브 성분을
함유해 피부에 닿자마자 즉각적인 보습과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다. 60ml 325천원, 문의 1800-1987

the BEAUTY

브랜드의 명불허전 베스트셀러부터 시중
한정으로 선보이는 특별한 에디션까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안하는 소중한
이들을 위한 뷰티 기프트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디올 아딕트 립 글로우 001 핑크
입술에 닿자마자 분얼의 입술 색깔을
더욱 또렷하게 살려주며, 맑고 촉촉함이
입술을 촉촉하게 가꿔준다. 3.5g
4만 1천원, 문의 080-342-9600



데코르테 오이스치 리포솜 브랜드의 독보적인 리포솜 기술력을 담은, 세안 후 가장 먼저 사용하는
파스트 에센스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빠르게 전달한다. 40ml 12만원대, 문의 080-568-3111



나리 로지 로즈 엑스타잔트 옥시토크틴 세럼 라즈베리와 유아한 로즈 향의 조화를 시작으로 비닐과 라벤더
향으로 마무리되는 프루티 마스키 로컬 과일 계열의 향이 매력적이다. 50ml 92만원대, 문의 02-3443-1805

(우부터) 리프레이 스킨 케어 리스 크림 케어아 추출물과 해양 식물 추출물이 피부 깊숙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탄력을 증진한다. 50ml 57만원대, 리프레이 에센스 오브 스킨 케어아 아이 크림
전체 사용하는 눈가 전용 에센스로, 케어아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 한두 번 사용만으로 눈가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준다. 15ml 20만원대, 문의 080-511-6626



시세이도 퍼펙트 UV 프로텍터 H SPF 50+ PA++++
일광 피로 제거와 볼러미, 산뜻하고 보습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땀과 물을 만나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 특징. 50ml 5만8천원, 문의 080-564-7700



샤넬 N°5 샤넬 히우스를
상징하는 향수 N°5를
새롭게 구성한 향으로
시트러스와 레몬, 민트만이
조화롭게 아우라지며
장미와 재스민, 일몰일랑의
투명함과 상쾌함을 담았다.
50ml 14만원대,
문의 080-332-2700



Top cleansers

스킨케어 제품은 피부 타입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두피와
모발에 매일같이 사용하는 샴푸 선택에는 다소 무심한 경우가 많다.
자고로 얼굴 피부의 연장선인 두피를 잘 관리해야 피부도 건강한 벨!
여기, 안전한 성분은 기본이고 다양한 효능을 갖춘 샴푸를 엄선했으니
성분과 효능을 꼼꼼히 따져 내게 맞는 샴푸를 골라볼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렐 트리 라벤더 샴푸 두피의 진정과 보습에 탁
월한 효과를 발휘해 모근과 모발을 탄탄하게 가꿔주는 유기능 샴푸. 로즈
메리워 라벤더를 주성분으로 해 두피 모공을 깨끗하게 세정하고 양털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밀로에 성분이 자극받은 두피와 모발을 빠
르게 진정시킨다. 천연 개편활성제를 함유해 거품이 적은 편이지만, 그만큼
두피 건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200ml 5만6천원, 문의
02-517-5513

클로라네 식류 샴푸 열 번 강아도 처음 염색 그대르라는 자신감 넘치는 광
고 로즈에서 몇몇 수 잇듯 염색 후 모발의 손상을 케어하고 갈라짐을 보호
하는 쿠스상 염색 모발 전문 샴푸. 특유한 식류 추출물이 염모제를 모
발에 고정에 염색 후 갈라짐 2배 이상 오래 유지해준다. 향산화 효과를 발
휘해 모발 갈라짐을 예방하고 윤기 있게 가꿔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식물성
단백질 성분이 염색으로 손상된 큐티클을 단백질로 채워주어 푸석해진 모
발을 부드럽게 회복시킨다. 200ml 1만8천원, 문의 1899-4802

모로카노일 오이스치 리페어 샴푸 풍부한 영양 성분과 보습력을 지닌, 모
로카노일의 명성을 고스란히 담은 손상 모발 및 건조 두피용 샴푸. 손상된
모발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케라틴과 향산화 성분의 이온간 이온을 풍부하
게 함유해 모발과 두피를 부드럽게 세정하고 모발의 탄력과 수분을 되살린
다. 이온간 오일 외에도 라벤더, 로즈메리, 캐비어, 호호바 추출물을 더
해 모발과 두피에 힘을 실어주고, 파란색을 포함한 유해 성분은 일절 함유
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250ml 3만2천원, 문의 1666-5125

엘레타 프리라티 샴푸 단방향기 풍부한 모발에 영양과 윤기를 선사하는
유기능 하니 성분, 두피와 모발에 활력을 더하는 자몽 에센셜 오일 완
성한 살리코프 프리 오기너 샴푸. 밀로인 유기능이 아닌, 까사블랑카 유영
한 유기능 인종인 에코트리 바이오 인종을 모두 받은 진정한 오기너 제
품이다. 모든 헤어 타입을 위한 대일리 제품으로, 살리코, 합성 개편활성
제, 파란색, 미네랄 오일, 향료, 페놀 에탄올 등 일곱 가지 유해 성분을
일절 함유하지 않고 99% 천연 성분과 19%의 유기능 성분으로 이루어져
이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 상큼한 자몽 향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 500ml 3만4천원, 문의 02-544-2505

리빙프루프 퍼펙트 헤어 데이 샴푸 미세 먼지로부터 두피와 모발 속까지
두피와 모발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이 샴푸를 놓아볼 것. 제품의 핵심
성분이자 특허 분자 성분인 OPFMA가 모발에 얽은 보호막을 형성해 모
발 전체를 하루 종일 깨끗하게 유지해주기 때문. 머리카락 한 올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부드러운 보습력을 씌워 먼지나 기름기를
차단하고, 그만큼 머리 갈는 횟수를 줄여줘 두피 자극을 최소화하는 똑똑
한 샴푸다. 살리코, 오일, 파란색 무함유 제품으로 산뜻한 시트러스 향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한다. 236ml 3만5천원, 문의 070-4373-7868

리네하티르 루미아 샴푸 속부터 빛이 떠오르는 '윤광' 피부처럼 머릿결
에도 '윤광'을 부여해줄 데일리 디톡스 샴푸. 깊은 헤어 스타일링으로 갈
라지고 손상된 큐티클층이 모발의 빛을 감싸주는 데서 착안해 탄생시킨
큐티클 집중 관리 샴푸로, 모발과 두피에 유해한 살리코를 함유하지 않은
100% 천연 활성 성분으로 만들었다. 디톡스 샴푸라는 애칭이 있을 만큼
두피 불순물을 제거 효과가 뛰어나며, 11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파오라반티
일코올리트 성분과 풍부한 비타민 C를 함유한 아세올라 채리 비니가 성
분이 큐티클을 부드럽게 정돈하고 모발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영림 없
이 칩클이는 머릿결로 가꿔준다. 200ml 2만4천원, 문의 1899-4802
에디터 권유진

금직한 핑크 컬러 토트백 2백70만원대
 로지 바버리, 이국적인 풍경을 자수로
 새긴 핑크 레더 재킷 가격 미정
 발렌타노, 그레이 니트 롱, 도트 패턴의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디올, 스트랩
 수조 1백30만원대 구찌, 드롭 010링
 27만원 스와류브스키,



True match

모든 여성들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고 아름답다.
 시선을 사로잡는 최신 잇 백(it bag)과 지금 가장 매력 넘치는 다양한 세대의 여성들.
 어느 봄날 그들의 특별한 조우. *photographed by jang duk wha*



(왼쪽) 스카이 블루 컬러 미니 숄더백
 2백70만원대, 이너로 착용한 블루 컬러
 셔츠, 소매에 깃털 장식을 가미한 롱 모두
 가격 미정 프리다, 스트라이프 패턴 쇼트
 팬츠 가격 미정 맨디, 니트 부츠 1백50만원
 바버리, (오른쪽) 짐금장치가 구조조적인
 미니 백 가격 미정 에르메스, 베이지 컬러
 테일러드 재킷, 팬츠, 벨트 모두 가격 미정
 마이클코어스 칼렉션, 기능화적인 힐이
 유니크한 앵글부츠 가격 미정 바버리,

(왼쪽) 모노그램 패턴을 가미한 숄더백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블루 컬러 재킷 가격 미정 **리베라**, 스트라이프 패턴 와이드 팬츠 가격 미정 **포츠 1961**, 섀비 드레스 이하링 가격 미정 **에르메스**. (가운데) 브라운 컬러의 레더 배낭 백 2백60만원대 **비버리**, 화이트 뷔스티에 재킷 가격 미정 **스텔라 매카트니**, 블랙 & 화이트 스트라이프 캣스카트 2백35만원 **나리치**. (오른쪽) 브라운과 옐로우 컬러로 패턴을 완성한 토트백 78만원 **에트로**, 스트라이프 패턴 셔츠 가격 미정 **포츠 1961**, 데님 팬츠 86만원 **로에베**.



핑크를 포인트 컬러로 사용한 체크 패턴 티셔츠 재킷 4백30만원, 멀티컬러 패턴 셔츠 2백30만원, 스카트 2백3만원 모두 **구찌**, 벨트로 활용한 주얼 장식 백 스트랩 1백20만원대 **프라다**, 옐로우 컬러 미니 토트백 4백만원대, 멀티컬러 토트백 8백만원대 모두 **엘보**, 체인 모티브 크리스탈 브레이슬릿 21만5천원 **스외로브스키**, 블랙 & 화이트 패턴 스트랩 슈즈 1백10만원대 **로저 비비에**.



핑크 토트백 2백40만원대, 카키 컬러 레더 트랜치코트 9백만원대 모두 토즈, 스트라이프 패턴 롱 셔츠, 실크 소재의 와이드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랑방**, 지브라 패턴 플랫슈oes 힐 1백1만원 **찰리**, 일사귀 모티브 안버클스 이어링 가격 미정 **앙크**.



(왼쪽) 블랙 초커 네크리스 가격 미정 **다움**, 카팅 다테업의 오렌지 컬러 재킷과 와이드 팬츠 모두 가격 미정 **포츠 1961**, 블랙 스트랩 슈즈 3백20만원 **주세페 자노티**, 톰 뎀들 토트백 5백70만원대 **구찌**, (오른쪽) 레드 컬러 니트 톱 81만원, 블루와 베이지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 드레스 가격 미정, 레드 컬러 오픈 토 힐 가격 미정 모두 **렌디**, 화이트 컬러 미니 톱 뎀들 백 2백90만원대 **구찌**, 골드 이어링 25만8천원 **앙크**.



(왼쪽부터) 진주 트림 블랙 드레스 가격 미정 **자방시 by 라카르도 타시**, 태슬로 컬러 블랙 출고물 준 토트백 가격 미정 **에르메스**, 투톤 핏프스 가격 미정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블랙 터틀네, 벨트 장식의 백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크리스털 장식을 기마한 블루종 점퍼 가격 미정 **자방시 by 라카르도 타시**, 래더 스커트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블랙 스트랩 부츠 8만원 **스튜어트 와이츠먼**, 스타드로 스타드라프 패턴을 표현한 톱, 플래이스커트, 삼버 채킨 태슬 장식 클러치 백 모두 가격 미정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주얼 스트랩 슈즈 3백20만원대 **쥬세페 자노티**, 이니로 착용한 블랙 슬리브리스 미니드레스, 시스루프 드레스, 벨트 모두 가격 미정 **자방시 by 라카르도 타시**, 블랙 주얼을 다한 슬링 백 슈즈 2백60만원대 **로저 비버리**, 그린 벨벳 미니 토트백 1백45만원 **나나리치**.



다양한 패턴을 다한 슬터백 가격 미정 **루이 비통**, 금직한 블루 컬러 스와로브스키를 새장한 드롭 이어링 가격 미정 **타니 by 마네타니**, 화이트 푼터 코튼 셔츠 드레스 1백50만원대, 커팅 디테일의 스웨트 미니드레스 1백90만원대 모두 **버버리**.



헤어 **이혜영 (AVEDA)**
메이크업 **김지현**
모델 **아나타, 이영진, 배윤성, 김설희**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자방시 by 라카르도 타시 02-517-7560
에르메스 02-544-7722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02-546-6090
프라다 02-3218-5331
루이 비통 02-3432-1854
스튜어트 와이츠먼 02-6905-3991
쥬세페 자노티 02-543-1937
로저 비버리 02-6905-3370
나나리치 02-6905-3827
토즈 02-3438-6008
퀵방 02-3438-6186
앨버리 02-3438-6140
인크 070-8733-2237
벨렌토노 02-543-5125
다들 02-3480-0104
구찌 1577-1921
스와로브스키 1661-9060
켄디 02-2056-9022
버버리 080-700-8800
타니 by 마네타니 02-6905-3683
리틀라 02-501-7180
포츠 1961 02-3438-6295
스텔라 매카트니 02-6905-3680
에트로 02-511-2572
로아레 02-6905-3470
델보 02-3449-5316

Korean Craft

전통적인 기법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국내 공예 작가들의 테이블웨어, 소박하면서도 은은한 매력을 풍기는 테이블웨어는 차별하면서도 내추럴한 식탁을 연출한다. 최근 들어 한국 공예가 주목받으면서 대량생산된 제품 대신 오브제도로 손수업하는 작가들의 그릇이 혼수 아이템으로도 관심을 얻고 있다.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전통적인 장식 기법을 사용해 물감을 풀어놓은 듯 미묘한 색의 조화가 아름다운 연한 핑크색 잔 10만원대 **이화화 작가 작품 by LVS.Craft**, 염색 기법을 사용한 투톤 컬러 블루 티포트, 그레이 화병, 핑크 볼, 옥빛 미니 잔, 보랏빛 잔, 쪽빛 미니 잔시 모두 4만원대~50만원대 **장미네 작가 작품**, 오렌지 컬러 잔 20만원대 **이화화 작가 작품 by LVS.Craft**, 보라색 마그잔, 베이지색 직사각형 미니 플레이트 모두 4만원대~50만원대 **장미네 작가 작품**.

실내용 페인트 전문점 **칼라메이트**에서 판매하는 신뜻한 그린 컬러 페인트는 팬톤이 선정한 2017 올해의 컬러 그라너리 15-0343.



* 위의 제품은 모두 작가 작품으로 가격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Kuhn Keramik

베를린의 핸드메이드 세라믹 스튜디오 쿤 케라미의 감각적이고 유니크한 테이블웨어 컬렉션. 클래식 무드에 워트 넘치는 그래픽 레터링이 돋보이는 개성 넘치는 스타일로 새로운 테이블웨어를 찾는 이들에게 적합한 브랜드로 떠올랐다.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웨딩 테이블웨어로 전체 컬렉션에도 도전해볼 만하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골드 손잡이 머그와 미니 사이즈 케이크 스탠드, 골드 포인트 미니 볼 모두 12만원, 손이 그려진 볼 9만5천원, 달링 레터링 장식 볼 10만3천원, 샬레드 볼 16만원, 조개 포인트 장식 10만3천원, 조개 포인트 장식 아래 레터링 레터링 볼 12만5천원, 샬레드 미니 장식 7만7천원, 포크와 나이프 프론트 오벌 장식 9만3천원, 달링 포인트 원형 장식 7만원 모두 **쿤 케라미 by 징블랑**.

옥색 페인트는 미국 친환경 페인트 브랜드 **베이가** 선택한 올해의 컬러 제너드 T17-15.



(왼쪽부터 시계방향) 핑크 컬러, 옥색 컬러, 보라색 컬러, 보라색 컬러, 보라색 컬러

Luxe table

당신의 식탁 풍경을 바꿔줄 결정적인 아이템. 한두 개만으로도 충분하고 멋스러운 테이블을 완성해주는 유니크한 테이블 피스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sung hoon*

Hermès

플레이트 하나, 커피잔 하나 만으로도 충분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에르메스의 테이블웨어. 폴 세튼가 애미도 원두 게 아이템으로도 소소한 일상의 식탁을 풍성하게 바꾸는 힘이 있다. 박물관이기도 했던 화가 로베르 달레의 동물 작품을 모티브로 한 까르네 데라로트 컬렉션은 에르메스의 테이블웨어 중에서도 예술적이고 감동적인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다.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앞 장시로 사용하기 좋은 미니 플레이트는 16만원대, 커피잔과 소스는 2개 세트에 38만원대, 새 그림이 그려진 미니 사이즈 볼과 포인트 세트의 볼은 모두 2개 세트에 38만원대, 티포트는 1백18만원대, 미니 플레이트는 2개 세트에 30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스모키하고 짙은 보라색 페인트는 페인트 전문 브랜드 **벤자민무어**에서 2017 올해의 컬러로 선정한 레드우드 211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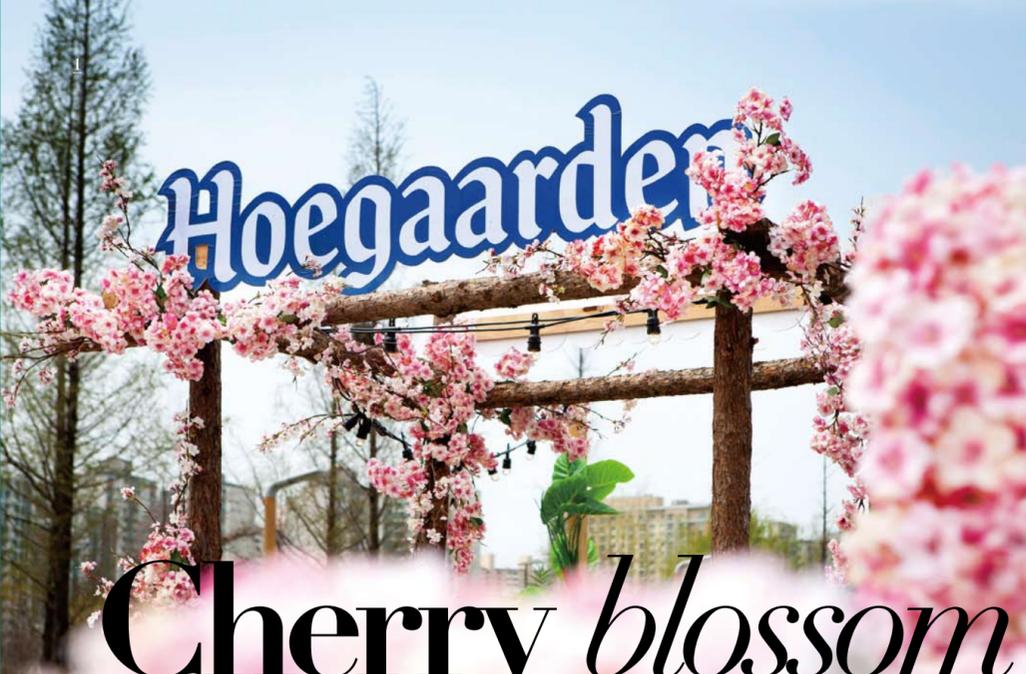
Baccarat

2백5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축적된 유서 깊은 아카이브를 자랑하는 바카리는 룩 집어 무엇을 갖고 싶지보다 그저 아름답고도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다. 웨딩을 앞두고 있다면 특하나 기념 만한 아이템으로 가득한 곳. 빛을 받으면 더욱 화려해지는 장미꽃 크리스탈 글라스는 유아하고 글레이스한 테이블을 완성하는 키 아이템으로, 로맨틱하고 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에 제격이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2개의 볼을 위아래로 걸쳐 구 모양으로 연출한 투명한 아라베스크 볼은 6개 세트에 57만원, 그린과 블루 컬러의 플루티시모 샬레드 글라스는 각기 다른 4개의 컬러가 1세트로 구성된 미니 플레이 세트로 1백75만원, 건축적인 조형미가 돋보이는 코발트 컬러의 이코어 라인 위인 글라스는 88만원 모두 **바카라**.

칼라메이트에서 소개하는 그레이 블루 페인트는 네덜란드 친환경 페인트 브랜드 **두러스**의 2017년 트렌디 컬러, 데님 드립트 87BG 27/077.



바카라 02-3448-3778 에르메스 02-542-6622 베이 031-382-5572 벤자민무어 02-3474-5200 징블랑 070-7803-3798 칼라메이트 02-3443-2080 LVS.Craft 02-2234-7475



Cherry blossom

벨기에 정통 밀 맥주 호가든(Hoegaarden)이 벚꽃을 담은 특별한 맥주를 봄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부드러운 목 넘김과 함께 입안을 향긋한 풍미로 채울 '호가든 체리' 출시와 더불어, 봄을 상징하는 벚꽃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 호가든 체리 블로섬 가든으로 초대한다. *photographed by yoo jeong hwan*

도심 속의 작은 일탈, 호가든 체리 블로섬 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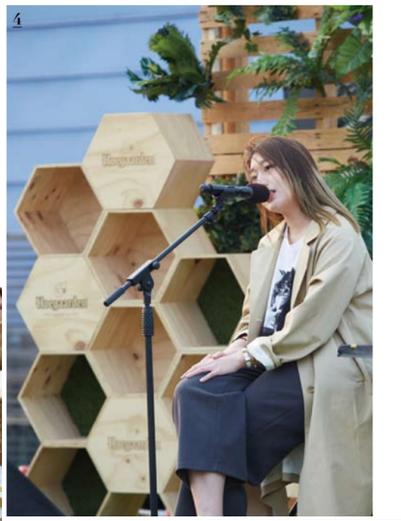
이제는 패션, 뷰티뿐 아니라 주류업계에서도 시즌 한정판 산재품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오직 그 시즌과 그 도시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한정판' 맥주를 선보여온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한정판의 즐거움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호가든에서 봄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호가든 체리가 그 주인공. 호가든은 6백 년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오리지널 벨기에 화이트 에일 맥주 브랜드로, 밀과 코리앤더 시드, 오렌지 껍질을 사용해 특유의 깊은 풍미와 향, 신선한 맛으로 남성들은 물론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호가든 체리'는 호가든 고유의 밀 맥주 맛에 20~30대 여성들을 겨냥한, 체리 풍미가 어우러진 맥주로, 지난겨울에 선보인 호가든 유자에 이은 두 번째 시즌 기획 제품이다. 오렌지 껍질과 코리앤더의 은은한 호가든 오리지널 향에 천연 다크 스위트 체리 과즙과 체리 시럽을 가미, 체리의 신뜻한 풍미를 코와 입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체리 꽃과 봄을 연상시키는 분홍색 라벨을 두른 패키지 디자인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봄을 상징하는 벚꽃으로 봄 분위기를 연출한 '호가든 체리 블로섬 가든(Hoegaarden Cherry Blossom Gaarden)'에서는 벚꽃처럼 신뜻한 풍미를 자랑하는 '호가든 체리' 병 맥주와



'호가든 오리지널', 라즈베리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호가든 로제'를 신선한 생맥주로 맛볼 수 있었다. 이번만 아니다. 체리 블로섬 가든 곳곳에서는 벚꽃으로 아름답게 꾸민 아치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해시태그 이벤트와 참여자들이 정성스레 직접 손으로 꾸민 드라이 플라워 펀치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이벤트도 개최했다.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호가든 맥주를 구입하면 벚꽃 도장을 찍어주는데, 스탬프 개수에 따라 벚꽃 타투 스티커부터 에코 백, 피크닉 매트와 화분 등 다양한 선물로 교환해줘, 많은 이들의 관심을 이끌었다는 후문. 또 4월 13일부터 행사가 끝나는 16일까지 매일 밤, <K팝스타> 출신으로 잘 알려진 권진아를 비롯해 소란, 윤판판, 데이브레이크 등 유명 뮤지션들이 체리 블로섬 가든을 찾아 봄과 어울리는 감성적인 음악을 들려주었는데, 은은한 어쿠스틱 기타 선율 속에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보이스가 호가든의 풍부한 거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텍스처와 어울려, 시원한 맥주 한잔과 함께 따스한 봄날 야외 공연을 즐기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새롭고 흥미로운 결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호가든의 봄맞이 프로모션 주인공 '호가든 체리', 따스한 봄날, 지인들과의 피크닉을 계획 중이라면 호가든 체리와 함께하길 권한다. 문의 080-022-3277 에디터 **이지연**



1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만개한 벚꽃나무가 즐비한 여의도 서울대나 이의 광장에서 호가든 체리 출시를 기념하는 '호가든 체리 블로섬 가든'을 열었다. 2, 6 미션에 성공하면 벚꽃 스탬프를 찍어주고, 볼 피크닉에 필요한 여러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3 맥주를 구입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해 벚꽃 스탬프를 모으면 개수에 따라 꽃다발과 화분, 에코 백으로 교환해준다. 4, 5 어쿠스틱 공연 행사 첫날 라인업의 주인공 가수 한울과 윤판판의 모습. 7 잊도그와 나츠 등 호가든 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낵도 판매했다. 8 한국에서 처음 출시한 호가든 체리는 대형 마트를 비롯해 편의점과 프리미엄 펍(pub)에서 캔(500ml)과 병(330ml)으로 만나볼 수 있다.



Cocktail time

여자의 손목을 빛나게 하는 주얼리 위치는 섬세한 세공과 컬러풀한 스톤으로 이루어진 예술품 그 자체다.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들어줄 카테일 위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까르띠에 베누아 주얼리 워치 프랑스로 '목조'를 의미하는 베누아, 목조처럼 생긴 유선형 디자인은 극도로 미니멀한 라인을 우아하게 표현하는 까르띠에의 대표 여성 워치 컬렉션이다. 핑크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41개를 세팅해 가장 클래식한 버전의 라틴 워치를 완성했다. 3천원대. 문의 1566-7277

오데마시게 레디 로열 오크 스포티한 디자인에 화이트 컬러다 이얼과 핑크 골드 케이스를 매치해 독보적인 매력을 다한 워치. 1백7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여성미가 느껴진다. 케이스 사이즈 33mm로 라틴 워치는 물론 데일리 워치로도 손색없다. 4천3백원대. 문의 02-3449-5917

반클리프 아펠 까르띠에 세르티 화이트 골드 브라이덜 워치 이방 가르드하고 반지 디자인이 인상적인, 오직 여성을 위한 까르띠에 워치. 브레슬렛처럼 착용할 수 있는 유연한 디자인으로 옆으로 기울어진 시간이 보이는 시프릿 워치 스타일이다. 화이트 골드 채인 브라이덜에 작게 자리 잡은 다이얼이 귀족적인데, 스노 세팅 스타일의 리운드 다이아몬드를 케이스 옆면에 세팅했다. 5천원대. 문의 00798-852-16123

부쉐론 에뮤어 디브 클러트 뒤 주르 그레이 컬러 마티오르벨로 펜지 꽃을 표현한 상징적인 하이 주얼리 워치.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무브먼트 회사인 자르드 파리고의 GP4000 무브먼트를 사용해 기계식 시계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소장가치도 높다. 가격 미정. 문의 070-7500-7282

블랑팡 레이다버드 울트라 슬림 아주 작고 앙증맞은 여성용 주얼리 워치. 영롱하게 빛나는 마티오르벨 디자인과 울퉁한 있게 움직이는 하트 모양 창이 사랑스럽다. 케이스 사이즈는 작지만 블랑팡의 완성도 높은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cal. 6150를 장착했다. 2천5백원대. 문의 02-6305-3367

피에레 라임라이트 길라 밀라니스 클래식한 밀라네제 메시 브레이슬릿을 다룬 유선형 디자인의 아름다움이 눈을 사로잡는 여성스러운 워치. 빛을 머금은 듯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알갱이 세팅해 손목을 따라 유연하게 흐르듯 만든 베젤의 아름다움은 티의 추종을 불허한다. 착용감이 실크처럼 매끄럽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4천원대. 문의 02-540-2297

타피니 라틴 워치 화이트 골드 다이얼과 베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진정한 의미의 라틴 워치. 베젤이 달린 블랙 색인 스트랩, 정교하게 세공한 다양한 크기의 리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세팅, 가로 21mm의 여성스러운 케이스 사이즈까지, 여성용 주얼리 워치의 정석을 보여준다. 2천5백원대. 문의 02-547-9488

부쉐론 아주레 카멜레온 주얼리 워치 아삭한 표정과 입체적인 세팅, 오직 부쉐론이기에 가능한 화려한 표현력을 고스란히 담은 유니크한 주얼리 워치. 차보라이트, 루비, 알타이러 사파이어 등 고귀한 컬러 스톤을 세심하게 세팅한 에메랄드 컬러 워치다. 가격 미정. 에디터 배미진



the ordinary Exquisite

유서 깊은 주얼리 브랜드와 한국 작가가 만나 새로운 비전을 펼쳐 보인다. 미술계의 떠오르는 신예 아티스트 조기석과 까르띠에 저스트 앵글루 컬렉션의 컬래버레이션.

예술의 가치를 드높인 까르띠에의 역사

주얼리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까르띠에(Cartier)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바로 1백70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최고의 주얼리 브랜드로 러브 컬렉션, 탱크 워치 등 품격 있는 이들의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 제품을 보유한 특별한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주얼리 & 워치 매종이라 자부하는 까르띠에는 지난 2012년 보다 도전적인 제품을 선보였는데, 바로 1970년대 알도 치폴로(Aldo Cipullo, 1936~1984)가 까르띠에 뉴욕에서 선보인 오리지널 모델을 재현한 새로운 저스트 앵글루 브레이슬릿이다. 이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주얼리업계에서 혁신을 상징하게 되었다. 못을 주얼리로 선보인 디자이너의 과감한 시도는 당시의 반순응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이 메시지는 디자인이 처음 출시된 후 약 반 세기가 지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까르띠에는 이 대단한 정신을 다시 한번 이어받아, 2017년 저스트 앵글루 컬렉션을 까르띠에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만들기 위해 신진 아티스트들과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예술을 향한 까르띠에의 오랜 집념은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1847년 파리의 보석 아틀리에로 시작한 이래 1백70년간 천재적인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보석과 시계 분야에서 장대한 역사를 만들어온 까르띠에는 미술 작가는 물론 다양한 예술가와의 활동으로 오랜 스토리를 이어왔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1984년에 까르띠에 현대미술 재단을 설립해 동시대 예술가를 후원하며 세계적인 예술 지원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해왔다는 사실이다. 재단 설립 초기부터 까르띠에 재단은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젊은 예술가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초의 전시회를 후원하는가 하면, 유럽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예술가가 전문가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까르띠에 현대미술 재단의 인큐베이팅을 거쳐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발돋움한 작가로는 한국 출신의 이불, 장-미셸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 셰리 삼바(Chéri Samba), 차이귀칭(Cai Guo-Qiang)이 대표적이다. 이렇듯 미술과 깊은 연관을 가진 까르띠에는 신예 아티스트 조기석과 함께 저스트 앵글루 브레이슬릿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비주얼 아티스트 조기석이 표현하는 저스트 앵글루

시각 디자인과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아트를 구현하는 아티스트 조기석은 저스트 앵글루 컬렉션이 까르띠에라는 주얼리 브랜드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까르띠에는 저희 세대가 범접할 수 없는 하이 주얼리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하이 주얼리뿐만 아니라 못이나 볼트, 너트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젊은 감각의 주얼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라며 까르띠에와의 첫 컬래버레이션에 대한 소회를 밝힌 조기석은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chogiseok)과 공식 홈페이지(http://chogiseok.com)를 통해 저스트 앵글루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네 점의 작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작품의 주제는 하나될 수 없는 둘의 만남: 공존, 시작과 끝이 만날 수 없는 직선을 구부러 접점을 만들어낸 저스트 앵글루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패공과 꽃, 동양과 서양, 남자와 여자, 자신과 타인 등 일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재로 삼아 작품을 만들어냈다. 재료 역시 합판, A4 용지, 버려진 도구, 망가지고 녹슨 기계 부품, 꽃 등을 사용해 저스트 앵글루만의 독특한 개성과 강렬하고 시크한 에너지를 표현했다. 최초의 저스트 앵글루의 디자이너, 알도 치폴로가 '못과 나서는 삶의 그림자다. 우리 주위에는 나사나 볼트로 조이고 못으로 박아놓은 물건이 잔뜩 널려 있다. 삶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소재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조기석의 작품 소재도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일상과 긴밀하게 맞닿은 재료를 선택해 작품에 녹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의 1566-7277 에디터 배미진



1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저스트 앵글루 브레이슬릿 리지 모델. 2 망가지고 녹슨 기계 부품과 꽃을 소재로 저스트 앵글루 브레이슬릿의 의미를 표현한 조기석의 작품 중 'coexistence #3'. 3 서로 이어질 수 없는 대상물 소재로 한 조기석의 작품 중 'coexistence #5'. 4 강한 개성과 뚜렷한 의미를 표현한 저스트 앵글루 브레이슬릿. 5-7 핑크 골드와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등 다양한 소재와 세팅 기법으로 변주한 저스트 앵글루 컬렉션.

Writing is a Gi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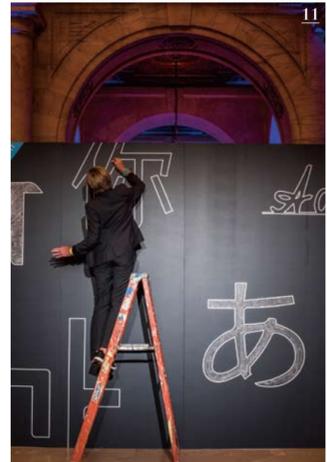
자선이라는 키워드는 우리 내면의 지성미와 강인함, 위대함을 일깨우는 의식과 같다. 해마다 선보이는 몽블랑(Montblanc)의 유니세프(UNICEF) 컬렉션은 올해 뉴욕 주립 도서관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Writing is a Gift'를 선보였다. 브랜드의 아이콘이자 세계적인 배우인 휴 잭맨과 다이앤 크루거 등 셀러브리티가 이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현장에서 유니세프, 그리고 몽블랑의 오랜 만남을 직접 취재했다.

아이들의 삶을 비상하게 하는 글쓰기, Writing is...

지난 4월 3일 뉴욕 주립 도서관 계단에 불이 밝혀졌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려는 몽블랑과 유니세프의 노력으로 이 특별한 장소에서 세계적인 이벤트가 펼쳐진 것이다. 멋진 펜과 가죽 제품,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한 도구와 다양한 퍼포먼스를 도서관 안에서 펼쳤고, 이 특별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적인 배우들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공간을 채웠다. 소외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브랜드와 유니세프, 스타들이 만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중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력적인 브랜드 몽블랑이 있다. 1906년 독일에서 탄생한 세계적인 명품 기업으로, 시계와 가죽 제품, 고급 펜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몽블랑은 브랜드 정신에 기반한 확고한 가치관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다. 1백 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세계적인 작가인 헤밍웨이의 명작을 만들어 낸 펜으로, 혹은 냉전 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서류에 사인한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펜을 만들어 낸 브랜드로 유명하다. 이렇듯 필기 문화에 뿌리를 둔 브랜드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회 공헌 면에서 의미 깊다. 이렇듯 전 세계에 다양한 문화 예술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몽블랑은 올해도 유니세프와 함께 이번 캠페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리미티드 에디션 필기구, 시계, 레더 제품과 액세서리로 구성된 새로운 컬렉션을 지난 4월 3일 세계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도서관으로 꼽힌 뉴욕 주립 도서관에서 론칭한 것이다. 1백 년이 넘도록 배움의 장소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 이 특별한 장소에 몽블랑 CEO인 니콜라 바레츠키(Nicolas Baretzki)와 유니세프 교육 부문장인 조본(Jo Bourne)을 비롯해 브랜드 홍보대사인 휴 잭맨과 샬럿 카시라기, 배우 라미 말렉, 유명 인사이자 블로거 커플인 올리비아 팔레르모와 요하네스 휴블, 디지털 기업가인 미로슬라바 두마, 모델인 엘사 호스크와 투리아 호드, 여배우 다이앤 크루거, 에이사 마이가, 칼리 체이킨, 유니세프 홍보대사 량용치 등이 참가해 새로운 컬렉션을 감상하고, 전 세계 5백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더 나은 학습 재료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에 지지를 보냈다.

몽블랑 X 유니세프 리미티드 펜에 담긴 진정된 의미

몽블랑이 유니세프와 첫 번째 캠페인을 펼친 것은 오래전인 2004년이다. 'Sign up for the Right to Write'라는 주제의 후원 행사에서 유니세프와 처음 인연을 맺은 몽블랑은 1천8백10자루의 리미티드 에디션 펜을 발표하고 1백49명의 유명 인사를 초청해 글쓰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인연은 다양한 주제로 꾸준히 이어져왔으며, 같은 해 다시 한 번 유니세프와 벨스 만델라 재단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스쿨스 포 아프리카(Schools for Africa)'를 후원하기도 했다. 올해는 다시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 글을 쓴다는 것의 중



요성을 알리게 되었다. 행사장 곳곳에 디스플레이된 몽블랑 유니세프 마이스터픽 펜의 자락을 보면 그 의미는 더욱 확실히 전달된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 중 가장 널리 통용되는 6개의 언어로 아이들이 가장 처음 배우는 첫 글자를 새긴 펜의 뚜껑은 이번 캠페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각 글자는 로마어, 힌두어, 아랍어와 3개의 아시아인 언어를 포함한 6개 언어의 알파벳 첫 글자다. 몽블랑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글의 의미, 펜으로 글자를 써 내려가는 것은 단순히 교육이나 기록을 넘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상징이다. 아직 전 세계 6억5천만 명의 취약 연령 아동 중 약 5천9백만 명은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몽블랑은 교육과 글쓰기 능력이 빈곤과 질병의 대물림을 끊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고 믿기에 지난 13년간 유니세프와 함께 전 세계 교육 프로그램에 1천만달러 이상을 후원해왔다. 몽블랑은 유니세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5백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그 목표는 국가별로 아주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학생 친화적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 평등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거나, 브라질에서는 유니세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4~17세 아이들에게 기본 교육을 제공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준다. 성별과 인종,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로운 컬렉션 역시 글쓰기를 강조하고 언어의 다양성에서 그 의미를 포착했다.

희망이 없는 아이들의 삶을 깨우는 '달리라는 특별한 선물

이번 몽블랑 이벤트 행사장인 도서관에 도착한 게스트들은 침팬 형태로 되어 있는 포토 월에 분필로 자신의 사인이나 자신에게 글쓰기란 어떤 의미인지 적는 등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학교 교실을 연상시키는 포토 부스는 어린 시절 글쓰기의 추억, 유니세프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교육을 후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블루 컬러 사파이어는 몽블랑과 유니세프의 특별한 파트너십을 기념하는 상징이다. 펜과 함께 선보인 다양한 디자인의 레더 제품 안쪽 블루 라이닝에는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6개 언어의 첫 글자가 담겨 있고, 이번 이벤트를 위해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 헤리티지 스피릿 오르비스 테라룸 워치에는 유니세프의 상징적인 디자인이 담겨 있다. 이렇게 행사장에서 선보인 제품들은 올해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판매되는데, 몽블랑 유니세프 컬렉션 수의 중 일부가 더 많은 아이들이 양질의 초등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니, 몽블랑이라는 브랜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캠페인을 매년 개최하고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 역시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다. 모두가 한자리에서 행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몽블랑 CEO 니콜라 바레츠키는 "몽블랑은 지난 13년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왔고, 앞으로도 많은 과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지닌 사람들은 가치를 공유하는 몽블랑의 제품을 소유할 수 있고, 읽고 쓰는 것을 배울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을 돕는 유니세프에 힘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글쓰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 "Writing opens up the world. Pass on this precious gift." 세계에 글을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희망이 필요한 아이들의 스토리에 주목한 것은 몽블랑과 유니세프의 세심한 선택이다.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글쓰기와 관련된 소중한 추억을 손으로 적은 사진

을 자신의 SNS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PassItOn #한글패스잇온 올리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한 권의 공책을 기부할 수 있으니 더욱 의미 깊다. 몽블랑과 유니세프의 노력을 후원하는 데 동참할 수 있는 더욱 자세한 방법은 몽블랑 페이스북 (facebook.com/montblanc) 또는 몽블랑 코리아 인스타그램 (@montblanc_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670-4810 에디터 배미진/뉴욕 취재

editor's Pick

새로 나온 뷰티 제품 소풍을 앞두고 있다면, <스타일 조선티보>가 추천하는 뷰티 신제품을 눈여겨보자.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르지오 아르메니 립 마이스트로 파파라치 컬렉션 핑크 코랄** 비르자미치 인술에 착 입착되는 핑크 텍스처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립 컬러가 번들없이 채워져 마치 본연의 인술 색처럼 보이며 적당한 수분감과 매트함이 가장 마음에 든다. 조르지오 아르메니의 뛰어난 색채 표현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 6ml 4만2천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이지연*

르네쉴레모 트라피직 ATP 두피 관리 전문 브랜드로 유명한 르네쉴레모. 최근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로 매력적인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는데, 그중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는 모발 강화 앰플. 가볍게 흔들어서 두피에 마사하면 소량만 사용해도 파우더를 조절하고 모발을 힘 있게 만들어준다. 5.5mlX8개 10만5천원. 문의 1899-4802 *_by 에디터 배지연*

메카케이 베이컨드 치즈 파우더 기빙 하트 보그만 해도 시원스러운 하트 셰이프의 치즈 블로셔. 베이컨드 타입으로 내추럴하고 은은한 핑크가 특징이다. 불에 살짝 타먹히기만 해도 자연스러운 생크림 향을 선사한다. 판매 수급일 일부를 제외한 사회 공헌 캠페인 아름다운 살현을 통해 전 세계 여성과 아동들 위해 사용한다고 하니 더욱 의미가 있다. 6.5g 2만1천원. 문의 02-3446-4058 *_by 에디터 이지연*

시세이도 에버 블룸 오드 퍼퓸 가볍고 달콤한 향조가 아닌, 고졸적이면서 여성스러운 아스키 화이트 플로럴 향을 품은 스프링 향수. 시세이도, 연꽃, 로즈 에센스가 어우러진 신화적 베이스에 오렌지 플로싱, 차차나무, 히노키오드, 그리고 시세이도만의 독자적인 마스코의 향을 더했으며, 특히 부드러운 파스하게 나는 잔향이 매력적이다. 50ml 9만5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권유진*

아벤느 피지오리프티 프레스리전 안전한 성분으로 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아벤느에서 선보이는 첫 리프팅 세럼. 공기 및 세균이 침투할 수 없는 아벤느만의 특수 진공 용기 덕에 개봉 후에도 유통기한 걱정 없이 매일 신선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피부 탄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아벤느-온순수의 각종 유용 성분을 함유해 2주간 사용해보면 결과, 입가는 물론 광대 부위까지 촘촘하게 탄력이 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5ml 5만5천원. 문의 1899-4802 *_by 에디터 권유진*

오엠티 오일 셀룰라이트 케어에 가장 적합한 효과를 선사한 제품. 수년간 이 제품을 사용해온 결과 이를 대체할 만한 보다 오일을 찾기 어려운 정도로 향기, 흡수력, 셀룰라이트 케어까지 완벽한 효과를 선사하는 제품이다. 립프질 중심으로 마사하면 노폐물을 즉각적으로 배출해 부종 예방에 탁월하다. 200ml 11만9천원. 문의 02-517-5513 *_by 에디터 배지연*

나스 레디언스 프라이머 붉은 핑크빛의 레디언스 부스틴 콤플렉스를 담은 텍스처가 착촉하고 피드백 보이는 파우더 진주빛으로 빛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캡슐 보호된 자외선 차단 성분과 피부 활력을 촉진하는 식물 추출물이 건강한 피부 연출을 돕는다. 30ml 5만원대. 문의 02-6905-3747 *_by 에디터 이지연*

이슬 제아놀 리프 바디 클렌저 자-차게 거품이 많이 나 씻어내기 어려운 보디 제품을 거두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신화적 감촉 보디 클렌저. 날씨가 따뜻해져서 샤워 횟수가 많아지는 요즘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다. 핸드 워셔로 사용해도 될 만큼 가벼운 제형이 매력적이다. 상쾌한 볼 향기가 느껴져 자주 사용하고 싶어진다. 500ml 5만6천원. 문의 1800-1987 *_by 에디터 배지연*

들 포드 뷰티 2017 올해의 세이 컬렉션 크림 & 파우더 아이 컬러 매해 여름마다 화이트 패키지로 찾아오는 올해의 컬렉션은 글로 스킨을 위한 고급스러운 펠 아이템이 주 무기. 그중 상단은 반짝이는 파우더, 하단은 크림 제형의 아이 섀도도 구성된 아이 컬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 7ml+2.2g 6만5천원. 문의 02-3440-2760 *_by 에디터 이지연*

데코르테 모이스처 리포솜 크림 데코르테를 대표하는 모이스처 리포솜의 명성을 그대로 담은 수분 탄력 크림. 브랜드만의 특이한 리포솜 캡슐 안에 유수 성분을 담아 피부 속까지 깊숙이 이루어진 캡슐 막이 녹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성분을 방출해 제품의 효과와 흡수력을 높인다. 피부에 바르는 즉시 촉촉한 수분감을 느낄 수 있다. 파우더 바르는 즉시 촉촉한 수분감을 느낄 수 있다. 파우더 바르는 즉시 촉촉한 수분감을 느낄 수 있다. 파우더 바르는 즉시 촉촉한 수분감을 느낄 수 있다. 50g 12만5천원. 문의 080-568-311 *_by 에디터 권유진*

클라린스 바디 워시 엑스피트 크림 온천에 가볍게 바르는 것으로도 피부 전체를 촉촉하게 하는 코르세 효과가 느껴진다. 운동 후 타이트한 근육의 느낌을 더 오래 지속하고 싶을 때 사용해도 좋다. 보다 편안한 정돈하는 데 확실한 효과를 자랑하기에 더욱 믿음을 준다. 200ml 8만원. 문의 080-542-9052 *_by 에디터 배지연*

샤넬 수블리마지 레 펴 수블리마지 크림의 풍부하고 부드러운 텍스처와 풍부한 영양에 반한 사람이면 만족할 만한 파운데이션. 스킨케어에 가까운 메이크업 제품으로, 수블리마지제 함유된 고귀한 성분을 감싸 담아 풍만한 보습력과 함께 피부 탄력을 높여주기 때문. 더불어 마치 본연의 피부가 좋은 듯 내추럴하면서 윤기가 흐르는 피부로 연출해주고, 그 상태로 8시간 동안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30g 18만2천원. 문의 080-332-2700 *_by 에디터 권유진*

시슬리 시슬리아 랭데그랄 앙티 이주 17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시슬리의 프리미엄 크림인 시슬리아 크림의 업그레이드 버전. 비르자미치 촉촉한 얼굴을 강하고 영양감이 풍부하지만 부딪스라지 않는 텍스처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선사한다. 오래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하이엔드 크림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50ml 5만원. 문의 080-549-0216 *_by 에디터 배지연*



LIFESTYLE



신선한 체리 과즙과 체리꽃의 향기를 자연 그대로 호가든에 담다



스와로브스키 미러 네이처 컬렉션 스와로브스키는 영국 출신 조각가 에런 그레고리아의 협업으로 탄생한 미러 네이처 컬렉션을 소개한다. 크리스탈을 활용해 에런 그레고리아의 시그니처 조각상의 북대, 표범, 그리고 곰을 완성했다. 세로로 개발한 크롬 코팅 기법이 선사하는 겨울 효과가 그래픽적이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지어낸다. 각 제품에 에런 그레고리아의 사인을 더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문의 1661-9060

호가든 호가든 체리 호가든은 상큼한 체리의 풍미를 담은 맥주 '호가든 체리'를 선보인다. 벚꽃을 담은 분홍빛이 시선을 사로잡는 이 맥주는 천연 대크 스위트 체리 과즙, 체리 시럽, 그리고 은은한 체리 꽃의 향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으로, 체리의 매력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다. 국내 대형 마트, 편의점, 프리미엄 펍 등에서 볼 수 있다. 문의 080-022-3277

BEAUTY



돌체앤가바나 라이트 블루 오 인텐스 향수 돌체앤가바나는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향수인 라이트 블루를 새롭게 해석한 신제품 라이트 블루 오 인텐스를 출시한다. 기존의 라이트 블루 향수의 향조보다 상쾌하면서도 관능적인 느낌을 지어낸다. 생동감 넘치는 관능미를 선사하는 여성 향수 라이트 블루 오 인텐스 부르 펴모와 푸른 바다를 연상시키는 시원한 향이 인상적인 남성 향수 라이트 블루 오 인텐스 부르 옴으로 선보인다. 문의 080-564-7700

디올 디올 어딕트 립 티투 디올은 즉각적인 티투 효과를 선사하는 립 틴트 '디올 어딕트 립 티투'를 새롭게 선보인다. 브랜드의 백스테이지 프라이오의 신제품으로, 마치 티투가 새겨진 듯 입술 위에 물든 컬러가 10시간 가량 유지되는 뛰어난 지속력을 갖췄다. 가벼운 텍스처가 돋보이며, 립스틱을 바르기 전 단계에 프라이머처럼 사용하면 보다 선명한 컬러를 연출할 수 있다. 총 6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80-342-9500

JEWEL&WATCH

까르띠에 팬더 드 까르띠에 까르띠에는 유연한 브레이슬릿과 직선적 디자인의 케이스가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여성 시계 팬더 드 까르띠에를 소개한다. 손목을 타고 부드럽게 흐르는 링크 브레이슬릿이 고급스러운 주얼리를 착용한 듯한 효과를 선사한다. 스틸 워치, 골드 & 스틸 워치, 골드 워치, 주얼리 워치 등 12가지의 라인업을 갖췄다.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까르띠에 매점 창문과 분다상 창문에서 프리 론칭을 진행하며, 6월부터 전국 까르띠에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66-7277

불가리 뉴 세르펜티 불가리는 브랜드만의 고급스러운 관능미를 보여주는 '뉴 세르펜티' 워치를 선보인다. 브랜드의 감성을 매혹적이고 컬러풀하게 풀어낸 뉴 세르펜티 워치는 멀티컬러 카본 가죽으로 제작된 더블 렉 스트랩을 적용해 마치 화려한 브레이슬릿을 착용한 듯한 효과를 낸다. 또 원하는 컬러의 스트랩으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 실용성 또한 뛰어나다. 문의 02-2056-0171

해밀턴 재즈마스터 오픈 하트 42mm 해밀턴은



티파니 티파니 하드웨어 컬렉션 티파니는 우아함과 강인함을 갖춘 현대 여성에게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주얼리 컬렉션 '티파니 하드웨어'를 선보인다. 뉴욕 거리를 채운 다양한 구조물과 오브제를 유니크하게 재해석한, 우아하면서도 개성 있는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국내 론칭을 기념하는 이벤트에 배우 한예슬, 수현, 유인영, 옥성재, 그리고 합함 아티스트 그레이와 로고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의 02-547-9488

SHOWROOM

0914 프리스틴 라인 0914는 신포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컬러감인 시선을 사로잡는 가방 라인 '프리스틴'을 소개한다. 리본을 연상시키는 가방 앞면의 시그니처 디테일이 사랑스러우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더한다. 데일리 백으로 활용하기 좋은 이 백은 도산 플라그십 스타와 가로수길 매장에서 판매한다. 문의 02-2056-0914

르메네쉴도 제니는 환절기를 맞아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제품으로 이루어진 '세컨 스킨 캡슐 컬렉션'을 출시한다. 트래블-레디 웨어에 초점을 둔 다양한 패션 아이템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재킷, 홀로 셔츠, 니트웨어, 셔츠, 트라우저, 데님 등으로 구성되어, 오프 화이트, 브라운, 네이비 등 스타일링하기 쉬운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2-3479-6279

콜롬비아 엘라 스파 비프리오 실크 스파 콜롬비아 엘라 스파는 기프트 시즌을 맞아 비프리오 실크 스파를 선보인다. 브랜드의 상징인 비프리오가 말라노 언덕을 여행하는 스토리를 일러스트의 생동감 넘치는 컬러로 표현했다. 정사각형의 스퀘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액세서리, 그리고 프티 트릴러로 출시한다. 문의 070-7130-9206

프라다 'Nonconformists' 광고 캠페인 프라다는 2017 F/W 남성, 여성 컬렉션의 주제인 '후머니티, 리얼리티, 그리고 심플리시티'를 테마로 한 'Nonconformists'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2월 15일 밀라노에서 진행된 2017 F/W 컬렉션 백스테이지의 즉흥적인 모습을 담았다. 또 흑백 인물 사진을 배치한 레이아웃으로 시선 킷 록을 더욱 강조했다. 문의 02-3218-5331

보테가 베네타 남성 가방 컬렉션 보테가 베네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많은 5월을 맞아 남성을 위한 '도큐먼트 케이스와 브리프케이스'를 제안한다. 2017 S/S 컬렉션의 특징인 컬러 믹스와 기하학적 플로깅 디테일을 기했다. 고급스러운 매트 카본 소재를 사용했으며,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워플과 3가지 다른 컬러의 플랩 디테일이 세련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지어낸다. 문의 02-3438-7601

브루넬로 쿠치넬리 린넨 블랜드 판츠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감각적인 실루엣을 완성해주는 린넨 블랜드 판츠를 추천한다. 라틴 스타일을 사용한 판츠로, 몸을 타고 부드럽게 흐르는 실루엣이 세련된 느낌이다. 붉은 물론, 장미가 어지는 어글러지 활용하기 좋으며, 다기오는 기프트 시즌을 위한 선물 아이템으로 제격이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모던한 린넨 블랜드 판츠로 우아한 스타일을 연출해보자. 문의 02-3448-2931

몽블랑 2017 유니세프 컬렉션 몽블랑은 판매 수익의 일부를 유니세프의 어린이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2017 몽블랑 유니세프 컬렉션'을 출시한다. 만년필, 수성 펜, 볼펜 같은 필기구는 물론, 가죽 제품, 시계, 액세서리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판매 수익 일부는 유니세프에 기부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의 초등교육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문의 1670-4810

레드 바이티 멀티 포인트 실크 스파트 레드 바이티는 신포한 느낌의 멀티 포인트 실크 스파트를 시즌 아이템으로 추천한다. 멀티컬러로 완성한 유니크한 패턴이 발달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스타일을 완성해준다. 목에 가볍게 두르거나 가방에 포인트를 더할 액세서리로 활용 할 수 있다. 문의 02-3449-5977

에르메스 2017 애플 워치 에르메스 밴드 에르메스는 애플 워치 에르메스의 새로운 밴드 컬렉션을 공개

에르메네집도 제니 세컨 스킨 캡슐 컬렉션 에

